朝鮮日報
本紙六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時評

普成과淑明의 盟休解決

×支那하게도 苦鬧하여 오든 學生盟休事件! 그中에도 더욱이 波瀾이 重疊하든 普成高普와 淑明女高事件은 이제에 解決의 曙光이 비로소 비추어젓다 普成高普에서는 五日理事會議의 結果 校長 趙鳴煥氏의 辭表는 受理하기로 하고 趙璟濬 敎諭의 進退는 次期校長이 措處하며 李奎昉 敎諭는 敎務主任의 辭任만 밧기로 決定하엿스나 退學生의 復校要求는 拒絶하게 되엇다고 한다 그리고 學生側에서는 要求條件의 全部를 解決하기外지 奮鬪하겟스나 校長辭職과 同窓會分立事件이 미解決되는 以上 其他要求條件은 登校한 以後라도 解決할 可望이 잇다 고하야 于先 二三學年生은 六日부터 一齊히 登校하기로 하엿다고 한다

×또 淑明女高에서는 齋藤主任의 退職과 九名의 無期停學生의 犧牲을 除하고는 歸鄕學生 以外의 學生全部가 五日부터 登校하야 오래 동안의 紛糾는 이로써 一段落을 매진것이다 勿論 發明會의 決議가 든 九名犧牲學生의 復校 學校對齋藤氏의 態度鮮明 辭表提出한 三敎諭의 留任要求가 남어잇기는 하나 이미 主要問題가 解決된 以上에는 남어지 問題는 盟休를 기다리지 안코도 달리 解決될 길이 잇슬것이다 우리는 무엇도 먼저 이만치 兩校의 善處한바를 欣賀하야 마지아니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되는 바는 오늘과 가튼 이러한 解決이 무슨 外닭으로 진즉 되지못하고 三個月이 넘도록 끌려왓섯든가? 우리는 다시 그 理由를 차저보라고 한다

×或은 말하기를 校長과 學生 사이가 嚴한 先生을 거려 그와 가티 團體的으로 抗爭함은 實로 學生의 身分으로는 到底히 容許치 못할 것이다 設或 先生의 잘못이 잇다하드라도 어데外지든지 그 허물을 감추어 順從하는 것이 맛당하겟다 그럼으로 그런 學生의 버르장이는 어데外지든지 膺懲할 것이라고 憤慨하기도 한다 그럼으로 盟休의 오래 감은 先生의 責任도 업지는 아니하나 生徒의 輕妄動이 그 重大한 原因이라 고부터는 이도 잇슬것이다 그러나 다른 見地에선 사람의 말은 盟休의 原因을 不合理한 現代組織에 化石化한 敎育制度에 몰리어 盟休의 現象이 조타그르다 하기보다는 盟休의 誘因이 學生의 生活上 壓迫과 社會的自覺이 增長함에 잇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現狀維持의 勢力과 그 打破의 勢力이 衝突함에 잇서 일어나는 現象의 粗笨的 形態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제外지 三個月 以上의 長期를 끌려온 것은 얼마나 抗爭의 辛辣한 바를 가르치게 되며 發病한 團體力은 그 解決을 몰이어 催促한 것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잇다 그러나 오늘의 學校問題는 校長學生의 勝利라고 부지럽시 것버할 바도 아니다 兩校의 盟休事件은 이 監偷人의 處置問題로서 局限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것을 學生側으로서 쏫올지엇스나 學窓에 몸을 부티어 가면서 解決할 問題가 非一非再 될 것이다 이번 事件에 萬一 意味가 잇섯다 고하면 團體的 訓練과 및 自覺의 向上에 잇슬 것이다 미루어 多事한 今後를 엇지 處해 갈 눈지 學校當局者와 및 學生諸君의 奮鬪를 企待하는 바이다

武南合同政府

樹立準備會議에列席次 兩方巨星次第來會

(北京五日發) 武漢、南京合同政府樹立準備會議에 列席하기爲하야 漢口에 在留中인 陳公博、于右任、徐謙氏等도 今明日中에 軍艦으로 南京에 急行하엿는바 途中汪兆銘氏等과 九江에서 同行이 될더이더라

兩派首領連名通電

(上海五日發) 武漢南京兩派의 將領 楊樹莊、唐生智、程潛、朱培德、魯滌平、李品仙、何應欽、白崇禧、賀耀祖氏等은 連名으로 武漢南京兩派의 合同、北伐繼續、國民革命의 完成、三民主義의 建設에 對하야 通電을 發하엿더라

譚孫兩氏來滬 諸要人의復職要求

(上海五日發) 譚延闓、孫科兩氏는 四日來滬하야 許崇智氏와 會見하엿는데 五日다시 胡漢民을 訪問하고 復職을 促하엿다 兩氏는 다시 辭職한 南京派要人의 復職또는 援助를 求하려고 諸要人과 面會하고 汪兆銘氏의 南京着을 기다려 南京에 赴하야 合同預備會議에 列席할터이라더라

妥協促進運動開始 李烈鈞氏가中間에서서

(上海二日發) 目下南京에 잇는 李烈鈞氏等은 武漢南京의 妥協問題에 關하야 九月十五日부터 開하기로 한 中央執行監察委員會도 目前에 逼迫하엿는데 如何히 하든지 兩者의 妥協을 促進할것이라 하야 이미 去二十八日에 軍艦決川을 漢口에 派遣하야 汪兆銘、孫潛、魯滌平、顧孟餘氏等의 至急히 東下할것을 督促하는 同時에 南京派에 對하야도 二日 蔣介石、胡漢民、蔡元培、張靜江、吳稚暉氏 其他要人에게 사람을 보내어 至急히 南京에 來하야 妥協問題에 誠意로써 協議하기를 要求하야 九月十五日의 會議前에 豫備會議를 열고 一切의 問題를 協議하자 하고 또 孫科氏는 一兩日中에 上海에 來하야 南京派要人에게 此旨를 言及할터이라더라

北伐軍費徵收 諒解要求

(上海五日發) 何應欽氏는 四日上海의 有力者를 交涉所에 招待하고 北伐軍備의 徵收에 對한 諒解를 要求한것이더라

쏘로진庫倫行 西安出發

(東京電) 某所着情報에 依하면 露西亞人二十名과 共히 西安에 滯在中이던 쏘로진氏는 同地에 도잇슬수가 업서 八月末에 庫倫을 向하야 出發하엿더라

楊村太沽 長安丸諸事件 全部解決

(北京五日發) 楊村에서 雜波軍에게 殺害된 事件과 太沽의 日本軍艦射擊事件 長安丸搜査事件은 겨우 解決되어 四日 日中間에 公文을 交換하엿더라

張宗昌歸南에 軍事會議開催

(濟南五日發) 張宗昌氏는 四日夜 歸濟하얏는데 孫傳芳氏의 要請에 依한 援軍의 派遣과 河南討伐問題에 對하야 軍事會議를 開하리라더라

蚌埠를目標삼고 南軍三路로北進 孫傳芳軍을包圍할計劃

(北京三日發) 南京政府는 唐生智氏間에 默契가 이미 成立하야 唐軍은 孫軍의 退路를 斷絶코저 蚌埠를 第一目標삼고 滁縣을 陷落시킨뒤에 山東을 攻擊할 北伐軍을 出動할 예일으럿는 그北伐計劃은

一、何健軍은 合肥方面에 잇는 第三十三軍과 合하야 蚌埠를 目標삼고 北進할 것
二、第四師는 六安을 지나서 唐生智軍과 合한 後 合肥로부터 蚌埠에 北進하야 三路로 蚌埠를 直衝할 것
三、李宗仁軍은 右二軍과 策應하야 蕪湖로부터 蚌埠에 北進하야 孫傳芳軍을 包圍할 것

이외가 는 南軍의 策應을 防備코저 張宗昌氏는 直魯聯軍의 一部를 出動하야 孫傳芳軍을 援助한다더라

唐程兩氏戰線指揮

(北京五日發) 唐生智、程潛氏等은 武漢軍의 安徽津浦線을 指揮하려고 近近蕪湖에 赴할터이더라

日艦에發砲또應戰

(上海五日發) 南京으로온 報道에 依하면 下江中에 잇는 日本軍艦은 南軍軍艦에게 砲擊을 맛고 艦은 二回에 亘하야 機關銃으로써 應射하야 드디어 沈默케 하엿더라

青島工場 操業短縮決議 協議結果

(大阪電) 靑島에 工場을 有한 日本人紡績代表는 五日午後大阪「공업」에서 操短問題에 關한 協議會를 開한 結果 上海에 工場을 所有한 會社는 二割二分五厘 靑島에만 보는 者는 二割操短을 決議하엿더라

蔣介石氏 再起?亡命? 各方面의聯絡은不怠

(北京五日發) 蔣介石氏는 目下手兵二千과 共히 鄕里인 寧波에서 近한 溪口鎭에 留하면서 歸鄕한 以來 自衛軍道路를 修築하고 또 電信局을 設置하야 各方面과의 連絡을 不怠하는바 最近親近者에게 對하야 『四、五個月後에는 予의 出馬를 必要하게 될더이다』 라고 語하엿다 이것으로 觀하더라도 再起의 意思는 充分히 認할수 잇고 또 蔣介石氏는 六日午前五時 上海出帆인 郵船山城丸으로 突然히 日本으로 亡命하기로 되엇다고 傳하는바 郵船上海支店長은 責任으로써 此를 否認하엿더라

孫軍右翼 合肥占領 安徽南軍阻止

(北京五日發) 昨四日夜大元帥府에 達한 報告에 依하면 孫軍은 損害가 六千名에 達하엿스나 主力은

山東派軍主力 青島到着

(靑島五日發) 濟南派遣部隊는 昨夜의 野砲隊到着을 先頭로 鄕田旅團長以下主力은 五日午前九

山東撤兵 中止與否 日陸軍側考慮

時半에 到着하엿는바 明六日朝外에 全部隊가 到着할터이더라

(東京電) 孫軍의 後退로 撤退中止說外지 傳하게 되엇는데 日本陸軍側에서는 同方面의 形勢는 依然狀勢와 는 큰 懸隔이 잇스나 아직 撤退中止等에 對하야는 考慮치 아니햇다 더라

日人보면 痛罵侮辱

(奉天五日發) 昨日午後八時頃에 中國人百數十名은 城內小西門內料理店愛信館即野島「고도」家를 襲擊하야 窓硝子를 破壞하고 退散하엿는바 最近中國人의 日本人에 對한 態度는 極히 橫暴하게 되엇고 特히 排日宣傳以來 益甚하게 되어 日本人만 보면 함부로 罵詈하야 實로 참을 수 업는 侮辱을 함으로 城內方面에는 單獨行動이 念慮되더라

◇奉天學界는 總休學狀態◇

(奉天發) 昨夜午後六時學生

奉天男女學生 排日示威運動 六日에擧行키로決議

(奉天五日發) 旣報한學生團의 請에 對하야 委員長은 外交問題는 國民이 一致하야 當할 것임으로 國民의 自覺을 기다릴 것이다 諸君은 將來 第一線에 立할 人物임으로 輕擧妄動은 삼가 달라고 訓諭한 外닭에 學生團은 爲先 退去하엿스나 示威運動에 參加한 男女學生 約一千名이 會合하야 學生等의 大示威運動을 明日에 決行하려고 決議한 模樣이더라

代表는 總商會를 訪問하고 外交後援會에 對하야 學生의 參加를 勸誘치 안흠은 可惜한 일이라고 詰問하고 昨日學生의 參加는 自發的의 參加에 不過함으로 近日中學生大會를 開하고 大示威運動을 決行하겟는바 萬若 其際에 官憲이 阻止할것 가트면 同盟休校를 하겟다고 提案하엿는데 今日學生의 登校者는 極히 小數임으로 學校當局으로서도 當分間 休校할수밧게 업스리라고 語하더라

(奉天五日發) 今日城內는 至極平穩한바 昨日의 示威運動으로 比較的 昂奮한 中國人은 日本에 對하야 罵倒嘲笑를 與하나 別노히 不穩行動에 出한 者는 업고 各戶의 排日宣傳旗는 아직 五六日의 兩日도 揭揚하리라더라

長江大戰에 孫傳芳單身逃命

南軍大勝捷捕虜가一萬 南京政府五百萬元各軍에分配

(上海五日發) 南京政府는 四日上海에서 孫傳芳軍擊破에 關하야 左와 如히 國民政府令을 發하얏더라

三日 孫傳芳軍은 大擧하야 揚子江을 渡하야 進出하려고 하엿스나 南軍은 武力을 써 此를 阻止하고 捕虜五萬과 銃器四萬挺을 得하야 孫傳芳은 겨우 單身으로 逃亡하엿는데 右大捷에 對하야 政府는 卽時 論功行賞을 할 터이나 爲先 蔣作賓을 南京政府代表로 하야 各軍을 慰問시키고 五百萬元의 慰勞金을 各軍에게 分配한

孫軍內部에 赤色이濃厚 孫傳芳은下野乃已

(濟南三日發) 揚子江南에서 失敗한 孫傳芳氏는 徐州에서 失敗한 蔣介石氏와 同一한 苦境에 陷하엿다 그리하야 그 內部에 赤化의 色彩가 濃厚하야 孫氏는 下野치 안흐면 아니될 境遇에 일으럿고 만일 孫氏가 下野한다면 山東軍과 相容할 수 업는 孫軍의 部將은 모다 南軍에 投降하야 南軍의 勢力을 增大함을 딸아 山東의 形勢가 危殆하게 되리라더라

孫軍滁縣集中 策戰休止

(南京三日發) 孫傳芳軍은 揚子江以北에 全部撤退하야 前線部隊를 安徽省滁縣에 集中시키고 作戰을 中止하고 總司令部는 蚌埠에 移轉하얏더라

芳澤公使 王總長을訪問 交涉顚末說明

(北京五日發) 芳澤公使는 來八日 王外交總長을 訪問하고 日中條約交涉開始의 日程을 決定하는 同時에 楊宇霆氏와의 間에 開始된 滿蒙問題交涉에 關하야 全然地方的 問題로서 基礎的 諒解를 得함에 不過한 旨를 一應 說明할터이더라

日軍續續引還

(靑島五日發) 陣山에 駐屯中인 日本部隊는 四日午後三時半에 撤退하고 濟南駐屯步兵一個中隊는 鐵道班百名과 共히 四日夜臨時列車로 出發하야 各各 靑島에 到着하얏더라

國際飛場決定 豫算計上

(東京電) 遞信省에서는 明年度의 航空路設置費(三年度以降三年間 六百萬圓) 二百萬圓中 國際飛行場新設費를 計上하기로 되엇는데 飛場所는 東京府洲崎 大阪安治川河畔 福岡市外의 海邊으로 決定하엿더라

滿蒙問題 解決難

(東京電) 日本政府는 滿洲當局者東方會議에서 滿蒙旣得權擁護及切迫된 滿蒙經濟局面打開策을 決하고 過般來 奉天及北京에서 多年의 懸案을 解決하려고 交涉을 開始한 際에 東三省에 일즉 보지 못한 排日運動의 發生을 보게 되엇다 그런데 總商會가 主動이 되어 煽動中이며 그 裏面에는 張作霖氏의 策動이 잇다고 傳하게 되어 日本當局은 자못 此點에 對하야 煩惱를 한다 그런데 此際에 滿蒙懸案의 解決은 到底히 容易치 안흠은 明白한바 外務當局은 右排日運動의 成行과 中國政府當局의 誠意等에 深甚의 注意를 하고 此對策을 講究하려고 하더라

朝鮮出版令發布는 日本改正法의通過後

朝鮮의 出版物取締는 現在新聞紙規則 新聞紙法 出版物規則 出版法等의 四個의 法令에 依하야 行하는 外닭에 取締가 煩雜하고 取締하는 者와 取締를 밧는 者共히 多大한 不便을 感할 뿐 아니라 不備한 點이 多함으로 새로히 右四法令을 統一하야 「朝鮮出版物令」을 發布하려는 것은 多年의 懸案으로 一時는 곳 發令될 듯한 形勢이엇스나 內閣更迭等으로 아직 停頓狀態가 되엿는데 總督府의 關係局課長은 一日이라도 速히 取締令統一의 必要를 痛感하고 此實現의 促進을 圖謀中이다 그런데 案은 이미 法制局인가 或은 拓殖局外지 回付된 듯한 바 此出版物令은 日本內地에서 發行된 新聞、雜誌로써 朝鮮에 販賣할 目的을 가진 者를 取締하게 되어 잇슴으로 日本內地의 法律과도 密接한 聯絡을 取할 必要가 잇는 結果 日本內地의 改正法인 出版物法이 確定되지 안흔 今日 朝鮮만 決定하야 發布하기는 困難한 點이 잇는 때문이라는 것은 第一은 이 外닭인 듯하다 日本內地의 改正法은 前議會에서 否決되엇스나 大概 來議會에는 다시 提案되리라고 생각함으로 萬一 如意하게 通過되면 此에 從하야 朝鮮及關東州의 出版物令도 續續發令되리라고 觀測되더라

積年懸案인 中國鐵道共管論

關係列國間에再起? 日本에서는强硬하게反對할터

(東京電) 中國動亂의 結果 列國의 財政的 援助는 오래동안 休止狀態에 在한바 最近 在中各地의 日本總領事及領事의 調査報告中 議題가 되어 外務省의 注意를 喚起하는 것은 列國이 一九一二年以來 가장 注力하여온 對中借款의 目的物인 中國各地의 外國投資鐵道가 荒廢되고 滿鐵、京漢線、津浦線、膠濟鐵道等 二、三의 鐵道를 除하고는 鐵路이 不可能한 狀態인바 現在 戰線中의 諸線도 將來 戰爭이 終熄되더라도 使用키 不可能한 狀態에 잇슴으로 列國은 그 修理의 緊要를 痛感하나 中國政局이 混亂한 今日 沈默은 如何한 態度에 極히 重要視된다 日本은 其被害區域外에 잇슴으로 多少 安心을 하나 現在의 狀態로는 또다시 關係國側에서 中國鐵道共同管理問題가 再燃치 안는다고도 할 수 업슴으로 當局은 非常히 憂慮한다 元來 中國鐵道共管問題는 前者關稅會議當時에 英國側에서 再燃시킨 後 北京外交團의 一主要議題가 되고 最近은 中國의 不當關稅問題等이 關連되어 主張이 大端히 有力하게 되엇다 그런데 日本政府로서는 主義上 强硬한 反對의 態度를 가지고 잇는바 中國의 鐵道荒廢의 程度가 太甚할 時에는 管論이 列國間에 再燃할 可能性이 잇다고 注意하더라

獨逸의對中經濟 可驚할만치着着發展

某處着報에 依하면 中國特히 揚子江方面에 對한 獨逸의 經濟的 復活이 顯著한바 上海稅關에서 最近調査한 結果 長江流域에서 昨年度 獨逸船舶의 出入噸數는 二百九十萬噸이며 또 獨逸로부터 輸入總額은 四千五百六十七萬「兩」이오 獨逸에 輸出總額은 千七百七十萬「兩」의 巨額에 達한 旨를 同稅關에서 發表하엿는데 此를 戰前 即 千九百十三年度의 輸入總額 二千八百三十萬「兩」에 比較하면 이미 歐洲大戰으로 失한 貿易上의 地位를 完全히 回復하고 다시 非常한 勢力으로써 貿易上의 地位를 向上할과 同時에 其他列强의 經濟的 地位에 對하야 重大한 威脅을 與하는 中인바 如斯히 獨逸의 對經濟的 地位가 非常한 速度로써 發展되는 理由는·主로 獨逸이 中國에 對한 治外法權을 撤廢하고 對中不平等條約의 一切을 破棄한 結果 中國人은 이에 對하야 大好感으로써 歡迎하게 된 것임은 勿論이오 特히 英國이 中國의 排外運動에 目標가 되어 長久히 繼續되어온 結果 長江流域의 商權이 根底로부터 轉覆되고 또 日本도 이 渦中에 捲入한 事를 다라서 經濟的 發展을 計圖한 結果이다 이 情勢로써 獨逸이 나아가면 日本은 姑捨하고 英國이 獨逸의 商權을 驅逐하고 舊時의 經濟的 優越地位를 回復할 與否는 疑問이나 永久히 獨逸에게 侵奪을 맛지나 안흘가 觀測한다 그런데 이 獨逸의 經濟的 侵略은 단지 長江方面뿐만 아니라 北中滿洲의 全般에 亘하야 이 傾向을 示한다 昨今은 北滿方面에外지 그 活動의 手段을 伸張하고 哈爾賓方面도 不遠에 獨逸의 勢力內에 陷하지나 안홀가 推測할 根據가 잇다고 當局은 獨逸의 對中通商上 交通信並融等 各般의 便宜를 享有하지 안헛슴에 不拘하고 着着 列强의 經濟的 勢力을 壓迫하는 巧妙한 經濟的 活動에 驚歎하는 同時에 情勢에 直面한 日本對中貿易의 前途를 痛切히 憂慮하야 이 對應策에 腐心하더라

英國前公使館 建物借入

(莫斯科五日發) 英吉利政府는 今回 當地駐箚諾威公使를 通하야 以前 英吉利公使館이든 建築物을 一年間 借用할 新契約을 하엿더라

米領事領 書記官狙擊 삿반兩人의死刑報復?

(도레스덴五日發) 當地駐在米國領事館書記官「스치ㅣ데」氏는 一凶漢에게 狙擊되어 重傷을 負하엿는바 兇行은 삿코와 반제티의 死刑의 報復인듯하더라

加奈陀도 非常任理事 立候補發表

(제네바五日發) 六日國際聯盟理事會에서 加奈陀는 非常任理事候補로서 立할 旨를 發表할터이더라

聯盟總會開催幕 一般軍備制限에努力

(제네바五日發) 本日國際聯盟總會開催에 際하야 智利代表「

失敗後를 繼承한 國際聯盟은 國際間의 協調와 保證과를 獲得하기 爲하야 一般的 軍備制限을 爲하야 努力을 하지 안흐면 안되겟다고 云云하더라

經濟會議痛感 三國軍縮失敗를보고

(제네바五日發) 國際聯盟第八回總會는 五日에 開會하엿는데 出席議員은 四十七名으로 日本代表 安達大使의 司會로 열렷다 「[illegible]」氏는 劈頭에 經濟會議의 價値는 三國會議의 失敗에 鑑하야 益益 其必要를 痛感한다 此際에 國民의 安全保障 戰爭防止의 組織을 作함은 益益 必要하게 되엇다 軍縮은 安全保障 國際主義에 結連하야 鑑考할 것이

爲고 述하고 最後로 列强은 未來를 라하얏고 人道를 爲하야 다시 努力을 繼續하리라고 結하엿다

푸機카라치出發

(印度카라치五日發) 世界一週機「푸라이도·오프데트로이드」號는 五日午前六時에 「아라하바ㅣ드」로 向하야 出發하엿더라

議長은과氏當選

(제네바五日發) 國際聯盟第八回總會는 五日에 豫定과 如히 開會되엇는데 南米「울과이」國代表「과니」氏가 議長에 當選되엇더라

非常任 理事國候補 白耳義宣言

(제네바五日發) 白耳義는 五日國際聯盟非常任理事國再選에 候補國으로서 立할 것을 宣言하엿더라

新興獨逸의 九千哩大國道 着着準備

(伯林發) 新興獨逸은 目下 諸般事業에 現著한 進步를 示하는 바 一例를 擧하면 遞信事務의 收入은 增加되엇는데 昨年度에는 一億二千五百萬馬克을 超하얏다 또 政府는 目下 九千哩의 國道를 新設하려 準備를 進行中인바 此國道는 獨逸의 各主要都市를 連絡하야 獨逸을 歐洲에 在한 觀光國의 中心이 되게 하려고 計劃하는 것이라더라

和議法改正案 次期議會提出

(東京電) 休業銀行整理에 和議法을 適用하기로 되엇는데 그 實際上 運用에 對하야 매우 不便이 有한 外닭에 最近 大藏省의 一部其他에 改正意見이 잇스나 卽行和議法은 複雜하야 解決하기外지에는 長久한 日數와 費用을 要한다 함으로 조금 簡單한 法律로 改正하야 信託會社等으로써 調停에 當케하는 方策이 實際上 效果가 有하다고 云함이라 大藏省은 그러한 意圖가 잇슴으로 改正案을 司法省外지 廻附하얏스나 兩省의 協議는 一致되지 못하고 法律案으로 된 外닭에 今回의 不便이 生한것인바 次期議會에는 改正案이 提出될는지도 알수 업다더라

松浦總長 京大豫算으로 湯淺總監訪問

松浦京城大學總長은 同校明年度豫算의 新規事業要求中 保留가 된 것이 만흠으로 其問題에 對하야 五日午前十時半 總督府에 李學務局長及平井學務課長을 訪問하고 打合한 後 湯淺政務總監에게 面談하고 여러가지 接衝할 것이 잇서 正午 辭去하엿더라

辭令

郡屬兼事實局屬 李院煥
任郡守(八等)

人事消息

▲安穆國氏 病氣療養中 五日午前八時 都染洞自宅에서 別世
▲元敬默氏(東光社社員) 去八月五日에 原州分遣內觀

八面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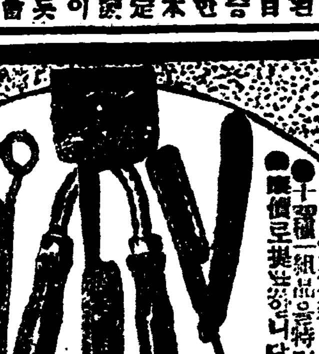
○國際聯盟非常任理事國候補에, 加奈陀도 들엇다고, 獨立國의 面目이 차차 가추어 가는군

○渡江戰에 失敗한 孫傳芳은, 徐州戰에 失敗한 蔣介石과, 同一한 苦境이라고, 國民의 興論을 들으면 天議가 만흘걸

○그리하야 孫氏는, 下野하게 되다고, 蔣氏는 潔然히 引退하엿지마는 孫氏도 그러한 廉恥가 잇슬가

○滿蒙問題는, 排日運動으로 解決이 困難하다고, 中國民도 確實히 녜날 中國民은 아닌 模樣

○아무리 積極的 政策을 主張하는 田中內閣이지마는, 四億萬의 全中國民을, 黃海에 모다 집어 넛치는 못하렷다



◎理髮器具의大明 ▲大革新? ●十四種一組品을特別 ●廉價로提供합니다

本商會理髮器具는 品質優良堅固無雙 價格低廉 完全無缺 實用本位

十四種一組 理髮機械 理髮鋏 面刀 귀소제 귀개 小刀 仕上鋏 式솔 花王石鹼 滌髮油 衛生비누 竹솔 — 一組價格別 最上品組 三圓八十錢 最特品組 三圓五十錢 上品組 參圓

地方代金引換迅速取扱

京城鍾路一丁目八三番地 丸宇合資商會 電話(光)二一三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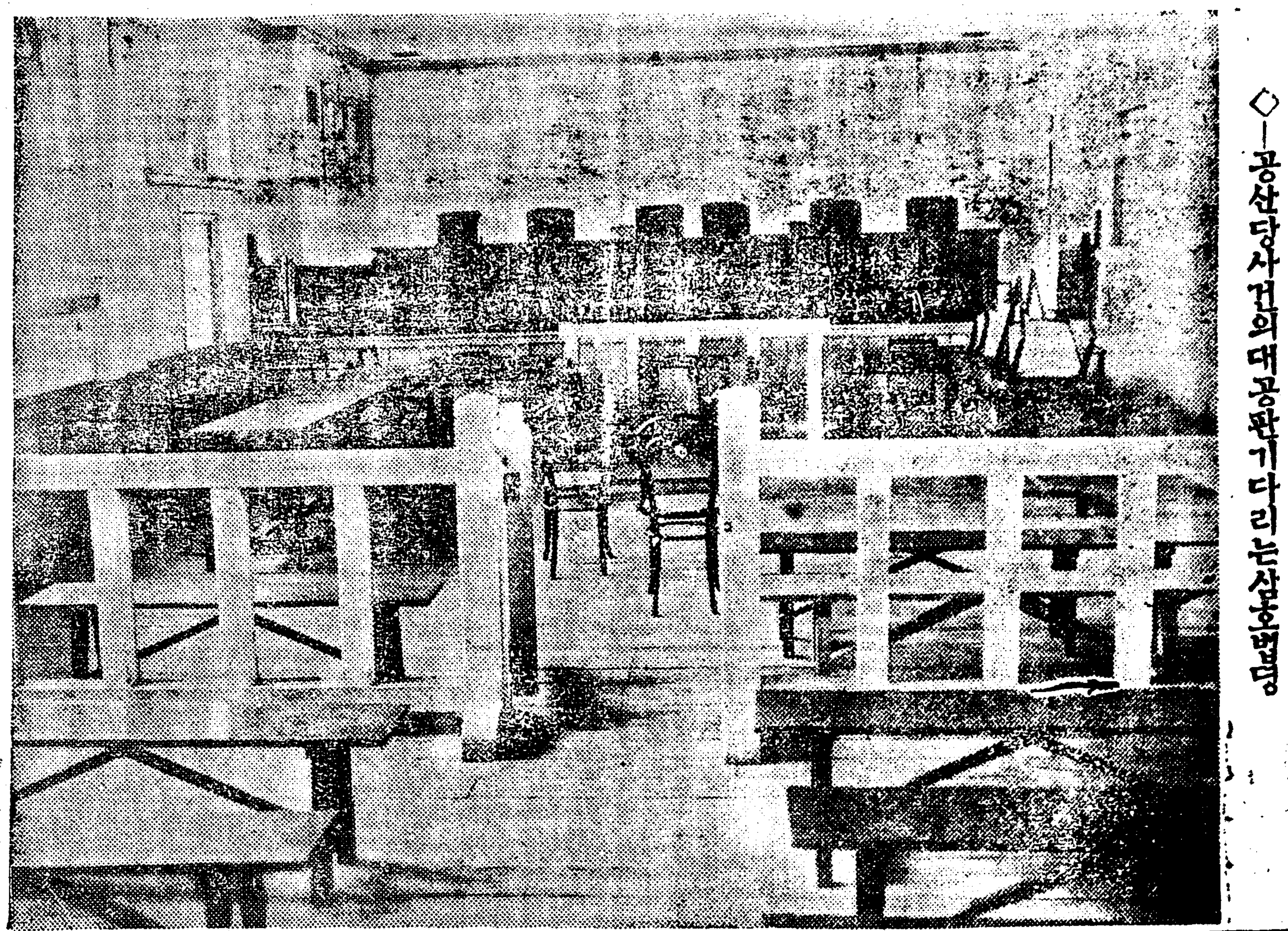
運轉士養成 運轉士紹介 朝鮮自動車硏究所
入學案內書二錢郵券入送申込次第進呈함
京城府[illegible]町六九番地 電話龍山五三五番

송도고무
今般에 本會社의 創立을 際하야 고무靴需用家에게 信用을 大博키 爲하야 『질기고 값싸게』 各種으로 特別製造하야 大廉價로 出하오니 僉彥은 一次試用하심을 望하나이다
開城郡松都面南山町六二番地
松都고무工業株式會社 電話長一五四番 振替京城一六四六五番
特約店設置歡迎 特約店設置에 對하야 希望하시는 人士는 勿失此期하시고 來議又는 書面으로 下備하시압소서 (但指定區域內에 再設은 謝絕함)

染料都賣
染料原料 高級製品 粉末잉크
割引表進呈 現品見本 染料三十錢 잉크拾錢 要함
京城府花園町九十七番地 染料原料商 東華洋行
電話本局三九九二番 振替京城一二四〇五番
原料部倉庫 花園町百十五番地
製品染工廠 花園町九十六番地

약은 山岸
クスリハヤマギシ
ヤクシュ, バイヤク, コウギョウヤク, イリョウキカイ, ケショウヒン,
オロシ〃コウリ
合資會社 山岸天佑堂
ケイジョウフ ホンマチ 1チョウメ
デンワ ホンキョク 372. 2014. 2896. 3615.
フリカヘ コウザ ケイジョウ 207バン
マイツキ エイギョウ ゲッポウ ヲ ハッコウ イタシマス

金銀地金買入
京城明治町
德力出張所



◇―공산당사건의대공판기다리는삼호법뎡

十三日共産公判에 勞働農民黨員特派

연도에서강연회도개최한다고

各團代表와辯護士도

긔보한바와가티재일본조선로동총동맹(在日本朝鮮勞働總同盟) 신간회동경지회(新幹會東京支會)림시공동위원회(臨時共同委員會)에서는오는십삼일부터 개정될조선공산당사건공판에대하야방텽대표(傍聽代表)와변호사파견(辯護士派遣)에진력하여오든바 긔귀 위원회는 그간일본로동농민당(勞働農民黨)에까지 교섭한결과 동당은 집행위원회에서 역시 금번조선공산당사건이 중대한 그만큼 등한시 할수업다는의미로 현재일본농민조합(日本農民組合)고문고옥(古屋)씨를당의 특파변호사로 지정하여 파견할터이며 자유법조단(自由法曹團)의포시(布施)씨와 중촌(中村)씨도 동재판에 대한변호사로 오게되엇스며 이상각 변호사와재일각단체 방텽대표일행은 칠팔일경에 발정할터이며 입경도중에부산대구각처 사회단데의 열렬한환영리에 강연회가 잇슬예정이라더라(동경)

▲辯護士
勞働黨特派古屋貞雄氏、自由法曹團布施辰治氏、同中村高一氏

▲傍聽代表
在日朝鮮勞總鄭南局、李東宰 新幹會東京支會姜小泉、權大衡、大衆新聞社崔益翰

▲入京道程
十一日朝 釜山着(晝間講演)
同 夕 大邱着(夜間講演)
十二日午後 京城着

『國際無産青年 데ー萬歲高唱

이러케외처서긔념

서울青年主催로

국제무산 청년데ー(國際無産青年日)인지난사일에 시내각단데에서는 여러가지방식으로 성대하게긔념식을 거행코자 하얏스나 경찰당국의금지로 모든계획이 중지되엇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시내서울 청년회에서는 일년에한번밧게 아니돌아오는세계뎍긔념일을 그대로지남은 넘우나섭섭한 일이라하야사일오후여덟시부터 동회원약륙십여명이 동회관에 집합하야차재뎡(車戴貞)씨의 개회사로 긔념회(紀念會)를 개최한후 니어서국제무산청년데ー」의 의의(國際無産青年데의意義)라는연뎨로리광(李珖)씨의 의의심장한 강연과리방(李芳)씨외수씨의감상담이잇슨후『서울청년회만세』『국데무산청년데ー만세』를 고창한후동오후십시경에소조한중에도 긴장과감격으로종료되엇다더라

東京朝鮮青盟 十一標語로

국제청년긔념일에

長文의宣傳紙配布

동경에잇는 조선 청년동맹에서는지난사일 국제청년일에 장문의비라에표어(標語)십일개를써서발표하엿다더라

洋服技工組合 창립긔념

경성양복기공조합(京城洋服技工組合)은오는 구일이 그 조합 창립긔념일임으로 그날긔념식을 성대히 거행하리라하며 겸하야 직공위안음악회를 하리라는데 시일과장소는 다음과가트며 일반동지 단데와일반직공들도 만히 래참하기를바란다더라

時日 一九二七年九月九日午後八時
場所 慶雲洞侍天敎堂

◇平壤小火

지난오일오전 네시이십분에 평양본뎡(本町)리시화(李時化)의집에서는그집압헤서쌔노엇든 솔가지에서 불이일어나 솔가지이천오백속 전부가타버리고 리시화의 집도절반을태워버렷는데 원인은 목하됴사중이며손해는약일천원이라고

水原署員 上京活動

식도강도가 서울오엇슴으로

수원경찰서(水原)로부터 소뎐(小田)부장외두명의형사가 상경하야 종로서원의응원을 어더가지고 무엇인지 대활동을개시하얏다는데 수원서원사매는 사건은 비밀에 부치고 함구불언하나그러나 모처로부터 탐문한바에의하면 지난삼십일일밤에 수원서관내에서 출몰한식도강도(食刀强盜)가경찰의경계망을 돌파하고 경성시내에 잠입한혐의가잇다하야 그와가티 형사대가상경활동하는것이라더라

松山射擊場서 朝鮮人夫即死

문허지는데 치어서즉사햇다

일본송산보병제이십이련대(松山步兵第二十二聯隊) 내의공사중인사격장(射擊場)일부가지난오일오후한시경비로말미암어문허지는바람에 그미테서 작업하던인부(人夫)세명이치이어생명이위독하다는바 그중조선인한명은즉사(即死)하엿다더라

한食口를덜자고 七十老人이自殺

나하나업스면살림이좀날가

시내원남동 일백칠십번디(苑南洞) 박긔완(朴基浣)(七三)이라는로인은 오일오후 아홉시반경에 그의집방안에서 다량의 양잿물을마시고자살을도모하려고민하는것을집안사람이발견하고곳시 총독부의원에 수용하야응급수당을베푼까닭에생명에는관계업게되엇다는데안날이몃칠남지안흔로인이그와가티자살을도모하게된원인으로말하면 로인의 장남인박모(朴某)는 시내해동은행(海東銀行)에근무하여 오든중 근근히 생활을 계속하야오든 것이 지난칠월에 돌연히 권귀은행으로부터 해고를당한후 부터는사오명식구가 호구를하야오든 수입이 한푼도업게되어 궁박한생활난이 극도에 달한까닭에 권귀로인은 한식구라도 식구가줄면아들의 생활이좀 여유가잇게될까하는 세상에도 눈물겨운생각으로 그와가티 자살을도모한것이라더라

妓生이妓生名譽를 毁損햇다고妓生이告訴

욕먹은기생이 회에서 성토당한기생이고소

사회상(社會相)의 내면을 알려면 재판소수부(裁判所受付)와 검사국 수부(檢事局受付)에 대하면 구경거리가 만흔것인데 이 경성디방법원 검사국에는 날마다 새록새록 기괴한 고소장(告訴狀)이 드러가게되엇다

◇

고소장의주인공 고소인(告訴人)은 시내락원동(樂園洞) 일백구십오번디의사호에 거주하며 조선권번(朝鮮券番) 기적(妓籍)에잇는기생 정류록(鄭柳綠)이 피고소인(被告訴人)은 관훈동(寬勳洞)사십번디에 거주하며 또한조선권번에 재적한기생 리도화(李桃花)외에다섯명으로 그들리도화외다섯명이 정류록의명예(名譽)를 훼손(毁損)하엿다는것이다

◇

내용인즉 이번에고소를 당한 여섯기생이 정류록에게 욕을먹엇다하야 어느날밤에 기생대회를 국일관(國一館)에서 열고 인력거를보내 정류록을불러다가 기생송련화(宋蓮花)가 좌장이되어가지고 단상에 놉히올라선후정류록을 수죄(數罪)를하여가면서 일장의 성토(聲討)를하얏섯다

◇

그런데 여섯기생이 욕을먹엇다는것은 정류록은 식도원(食道園)의노릇을하지안는데 여섯기생은 그곳을잘가는 패인까닭에 어느좌석에서 정류록이가 그기생들은 식도원사람과 무슨인연이잇나보다고 하엿다는것을 여섯기생이 듯고 점잔은 기생아씨의정됴(貞操)문데에관계되는소리를하얏스니 괘씸한것 이라고 성토를한것이라고

◇

또정류록등의나는 점잔은기생아씨중에도 일류인데 함부로청됴를 더럽히고 버거리로또한 명조론 말을퍼트리어 명예를훼손하얏다는고 고소를한것이라고한다

◇

그래서 어쩌서지는 언니아주머니하든 그들이오늘은 그런거런하고 처음에는 욕을서로하다가 결국고소질까지한것이라고기생들은 명예훼손을당하면 엇더한 영향을밧는지

拳銃携帶한新民府員 朝鮮內潛入計劃

이정보접한경찰은실색경계

화룡현에잇스며준비중이다

黃某外八九名이

모처로부터도달한정보에의하면 신민부원(新民府員)황극삼(黃極三)(三六)양칠남(楊七男)(四四)등두명은금년오월경중국강청현합막당(中國江淸縣蛤蟆塘)최군명(崔君明)의집에이르러군자금(軍資金)을모집하다가 당디순유대(巡遊隊)에게발견데포되어 국자가 감옥(局子街監獄)에입옥(入獄)되어잇던중륙월중순경수인(囚人)수명과공모한후 파옥도주하야 다시조선내에침입하야 ○○○○과군자금(軍資金)을모집할목뎍으로 현재화룡현(和龍縣)방면에잇스면서 준비중이라는바 그들의일행은팔구명가량으로모다 폭탄(爆彈)과권총(拳銃)등을휴대하엿다더라

正義府參謀員이 密偵十餘名銃殺

일중관헌의행동을정찰

荒蕪地에더開墾

금년음력사월경까지 압록강 연변(鴨綠江沿邊)에다가근거를두고 여러방면으로통하야 군자금모집(軍資金募集)을하여오든정의부참모부원(正義府參謀部員)약 백여명은 그곳중국관헌의 취톄를피하기위하야 금년 음력오월중순에 서간도화전현 협피구부근디대(西間島樺甸縣夾皮溝附近地帶)로본부를이전하엿는데 동디에 이전해온이후로는 중국육군대에 통역관으로잇는 조선사람오모(吳某)의알선으로황무디약이십향(荒蕪地約二十晌)을 중국사람에게서 어더가지고 목하개간업(開墾業)에몰두하는중이라하며 또다른일방으로는 일중량국관헌의경계를 뎡찰(偵察)해오는터로 오월하순부터 칠월상순까지 약한달동안에 조선사람십여명을 총살하엿다는바 피살된사람들은 모다 일본관헌(日本官憲)의밀뎡(密偵)혐의(嫌疑)를밧든자이라더라(간도디국발신)

寧安縣姜氏

사회주의자 협의로잡히어갓다

북만녕안현가(寧安縣街)에서신광려관(新光旅館)이라는려관을경영하고잇던 강순(姜純)외일명은 사회주의자혐의로 근일중국경찰에체포되어 합이빈(哈爾賓)으로 갓다더라

三青年會合同 南部同盟

디역별로한청년동맹에

지난삼일오후팔시경에 시내병목뎡(並木町)에 사무소를둔 장충청년회관(獎忠青年會館)내에서 림시의장김찬진(金瓚鎭)씨사회하에 협우(協友)장충(獎忠)중앙로청(中央勞靑)등삼개단데의 위원이 모히어 삼단데련합위원회를열고 여러가지로 토론한결과 이상삼단데의 합동과동시에 디역별(地域別)청년단데로 경성남부청년동맹(京城南部青年同盟)을 조직키로하엿다는데 동맹회의 준비위원(準備委員)은일에와가티 선정 하엿다하며 합동성명서(聲明書)는추후로발표하리라더라

◇大會準備委員氏名
『協友』金瓚鎭 李晃 兪炳鮮
『獎忠』林虎 吳烈
『中央勞靑』康永源 曹哲

橫領郡屬

본적을황해도 옹진군 흥면봉하리(黃海道瓮津郡興面鳳下里)에두고 현금 연백군청축산계(延白郡廳畜産係)서긔로 근무하던 김원복(金元福)은 연백경찰서에 인치되엇다가 지난이십구일에 일건서류와함께해주(海州)검사국으로넘기엇는데 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전긔 김원복은 작년사월경부터축산계서긔로근무하여오던중 공금을횡령하야료리집과 기생에게 전부소비하엿슴으로이것이발각되어그와가티해주로넘기엇다고(연안)

牧島附近癩病者 無人絶島에收容

한곳으로모아치료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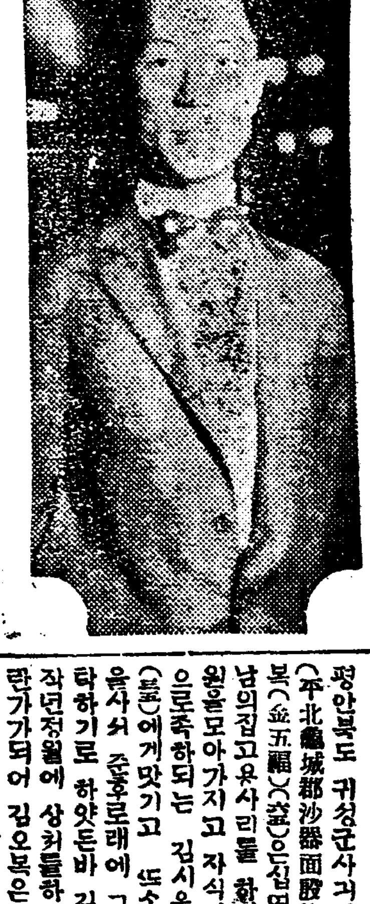
爲先麗水로數十名

부산일대(釜山一帶)를근거로시내각처와 목도(牧島)일대에 퍼져잇는 문둥병자(癩患者)는 수백명에달하야 도처에 소굴(巢窟)을짓고 시가로횡행하야 위생상은 물론이며 일반의폐해가막대하야 이에대한 수용책(收容策)으로관계관텽에서 대책을 강구하든바 결국은무인도(無人島)내로 자급생활(自給生活)을하도록 수용하기로되어 일변으로는 근방의료양소(療養所)로보내게되어 려수(麗水)로 수십명을선발케하고 더욱수용소(收容所)를확장시킨후 원만한수용을하도록 하리라더라(목도)

光州公普校盟休

수업중수백명이뛰어나가

륙일오전아홉시경에 광주공립보통학교(光州公立普通學校)에서는 수백명학생이 수업중도에 일제히 큰소리를지르며 교실로부터 운동장으로뛰어나가 다각각집으로돌아가동맹휴학(同盟休學)을단행하얏다는데 그리유는 긔보한광주보통학교 조선인교원(光州普通學校朝鮮人敎員)의맹파사건(盟罷事件)에관련한것으로 권귀교원중 한명은면직(免職)이되고네명은전근(轉勤)이된것이 도화선(導火線)이된것이라는데 문뎨는 칠컴 확대될모양이라더라(광주지국뎐보)



◇…철학박사 백락준씨

十二年螢雪功에 哲學博士로還鄉

오일에돌아온백락준씨

延專敎授로被任

일즉이 평북곽산(平北郭山) 출생으로 지금으로부터 십일년전에 미국으로 건너가 형설(螢雪)의공(功)을 싸흔결과 『파』대학과 『프린스톤』대학을 우수한성적으로졸업한후 계속하야 특대생(特待生)이라는 특별한 우대로서『에일』대학에서 다시연구를거듭하야 드듸어철학박사(哲學博士)라는 영예스러운 학위(學位)를어든 백락준(白樂濬)(三二)씨는 오일오후일곱시 경성역도착 북행렬차로써 십수년만에금의환향(錦衣還鄉)을 하엿는바 경성역(京城驛)까지 왕방한긔자에게씨는다음과가티말하엿다『아메리카에가잇는 조선사람의수효는 약사천명 가량인데그중의 약일할은 류학생이며 남어지는 실업에종사 하거나그러치안흐면 로동을하야 지내가는 사람들로 생활상태는비교뎍 안일한것갓습니다…조선으로말하면 철도연변(鐵道沿邊)으로 볼것가트면 인가(人家)나산수(山水)가튼것은 그때이나 별로히다를것이 업습디다마는 사상(思想)이나 일반생활정도는 그때보다 퍽발달되고 향상된것 갓습되다……그리고 장래에 무슨사업을할는지는 아즉작정하지 안엇스나 우선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에서 교편을잡어써 육영사업(育英事業)에 노력하기로 하얏습니다……』

모히密賣犯 巨魁六名又逮捕

종로서에서또다시활동중

밀매액수가만여원이라고

월전에 대규모(大規模)의 모히밀매단(密賣團)을 일망타진한 종로서위생계(衛生係)고궁(高宮)경부보는 또무엇인지 수일전부터 비밀한가운데 대활동을개시하더니 오일오후까지에 조선인일본인 도합여섯명을 인치하야다가 목하엄중한 취조를하는중이라는데 종로서에서는 사건의련루자가아즉전부데포되지안엇슴으로 발표할수업다하야 말을하지아니하나 그러나모처로부터 탐문한바에의하면 종로서에서는 일건서류와 함께검사국에 송치한 텬야(天野)일파의 모히밀매단의 취됴에뎡아서 새로운단서가 탄로되어그와가티활동을 개시한것으로 역시모히밀매사건에관련한사건이라하며 지금까지판명 된모히밀매액은 약일만여원 으로종로서에서는련루자를일망타진하기에계속활동중이라더라

失足되어溺死

새우젓장사

시내도화동(桃花洞)일백칠십삼번디리갑룡(李甲龍)(二三)은그날그날을 강에서 새우젓을사서팔어 가족이 생활하든중 금삼십일오후령시경에 도역시배에 가서새우젓을사가지고 륙디로나리다가실족되어 그만무참히 빠저죽엇다더라

二百圓을貪내어 親叔을刺殺

늙은삼촌을낫으로찔러

죽인후몰래장사지낸자

【暗葬後四個月後에發覺】

평안북도 귀성군사긔면 은봉동(平北龜城郡沙器面殷鋒洞)김오복(金五福)(三三)은십여년전부터 남의집고용사리를 하여 이백여원을모아가지고 자식이업는 탓으로죽하되는 김시운(金時運)(五四)에게맛기고 또소(牛)두필을사서 준후로래에 그죽차들의 탐하기로 하얏든바 김시운이가 작년정월에 상처를하고 집안이 란가가되어 김오복은 늙은삼촌을 의탁할곳이업서 다른죽하 에게 의탁하고자 전에맛기엇든 돈을내어노라하얏든바 김시운은 항상그까닭에자긔삼촌과싸움을하여 오든중지난륙월초순경에는이웃에가서술을 잔뜩먹고와서 낫으로자긔삼촌의머리를찔러 죽인후 지난륙월십일일에 동리압산 에다가암장한것을 근자에 소관경찰에서탐지하고시톄를검시한결과 타살이분명함으로 시범인을 인치하얏는데 김오복의 시톄는 죽은지이미사오개월이되엇서도 썩지도안엇다더라(귀성)

南宮熙氏 南米視察歸國

지난오일에

남미『부라질』을시찰하려갓든조준호, 김춘긔, 남주희 (趙俊鎬金春基南宮熙)삼씨는 그동안북미(北米)요디를거치어남미(南米)에가서 약이개월동안 톄재하다가 일행중남주희씨는지난오일오후아홉시삼십분에경부선렬차로 나리어안양자택(安養自宅)으로무사히돌아갓스며 그동행인 김조당씨는오는십월에귀국하리라더라

仙藥枸杞子茯苓 市外阿峴에出生

◇京城帝大敎授發見

구긔자복령(枸杞子茯苓)을먹으면 신선(神仙)이된다는 전설(傳說)이잇서 구긔자복령이 령약(靈藥)이라는말은 우리가 항상들어오든터이나 실디로 구긔자복령은 희귀하기짝이업서 이것을 우리가본경험은 적은터이다

◇

그런데경성데대(京城帝大)의약물학교수(藥物學敎授)석호곡면(石戶谷勉)씨가이것을발견하얏다고 발표하얏는데 그것은 시외아현리(阿峴里)이백삼번디 주치명(朱致明)씨의집뒷뜰에서이것이낫다한다

◇

그런데 그모수(母樹)를 실디로 검사하여보면 신롱씨(神農氏)의 본초경(本草經)에잇는 구긔자나무와갓고 복령은외피(外皮)가 담황갈색(淡黃褐色)을띄고 절면(截面)은빗이희며 수질(水質)이 만흐며 육(肉)은 칼로데이면 떨어지는데 현미경(顯微鏡)으로 보면 년륜(年輪)이잇는바 도관(導管)은 사출상(射出狀)으로 분포되어 모수(母樹)보다크고 유세포(柔細胞)안에는 던분립(澱粉粒)을저장하야 미향(微香)과 특종의 긔미(氣味)가잇다고한다

橋下에 落死女屍

본뎡서원이

검시후경성부에인도

오일오후여덟시삼십분경 시내 황금뎡(黃金町)칠뎡목일번디압다리미테 나히사십이세 가량되어보이는 조선녀자한명이 추락절명(墜落絶命)한것을 통행인이 발견하고 곳본뎡서(本町署)에급보하야 경관이 현장에이르러 검시후 사톄(死體)는경성부(京城府)로 넘기엇다더라

金村驛手 汽車觸死

오일오후 열한시에

지난오일오후열한시 오십분경경의선(京義線)금촌역(金村驛)에진입(進入)중 동역에 근무하는역수(驛手)화촌수정(花村秀政)(二九)은긔관차(機關車)에부듸치어즉사(即死)하엿다더라

慈善憑藉詐欺

두명인치취됴

종로서고등계에서는 오일 오후에 시내모처로부터 송찬용(宋贊用)량원모(梁元模)의 두명을 인치하야 다가 류치장에 가두고 엄중취됴중이라는데 사건의 내용은 자선 사업(慈善事業)을 빙자한사긔사건(詐欺事件)의련루관계이라더라

三年以來 女窃盜

광화문통에서 본뎡서원데포

고양군한지면신당리(高陽郡漢芝面新堂里) 오성녀(吳姓女)(四二)는원래성질이불량하야 대정십사년십일월이래 시내사범학교(師範學校)와병목뎡(並木町)등디로돌아다니며전후수십회를두고구두 혹은의복류등을 절취매각소비한것을 소관 본뎡서에서 탐지하고 이래잇는곳을 엄탐하엿스나도모지발견치못하엿던바 지난오일에 시내광화문통(光化門通)을배회하는것을인치하야엄중취됴중이라더라

일축조선소리판

레코ー드의權威

九月新譜

◎全國到處各樂器店에서販賣합니다
◎總目錄과趣味잇는月刊雜誌를無代로進呈

레코ー드界의新記錄 十八枚連續盤中
春香傳 最終篇 (一枚)
李、春再逢歌
李東伯 金秋月 申錦紅 共演

流行歌
명주수건 雙玉淚 李南史
롱속에든새 花園의사랑 피아노 바이올린 伴奏

童謠
신소래나오 별노래 피아노 코ー네트伴奏 李貞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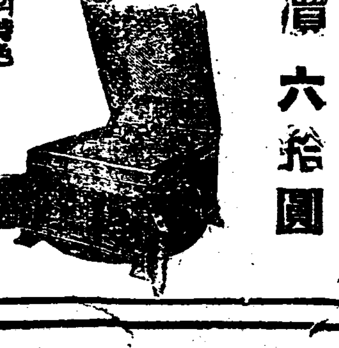
판소리
박타령 金昌龍

雜歌 西道雜歌
성주푸리(才談入) 朴春載
愁心歌 엮금愁心歌 張錦花 白牧丹

吹奏樂
국거리、속국거리
긴장단국거리
무당국거리
二八青春歌
홍打令
아리랑타령
장긔타령
한강수타령
자진난봉가
朝鮮樂團

新譜에는斯界一流名唱의有名한曲을網羅하야잇습니다

ー新器械發賣ー
이ー글一號 定價 六拾圓
外形優美… 內容充實… 驚異的 振動盤은 本器의特色



京城府黃金町一丁目
株式會社 日本蓄音器商會

新設紀念 競馬大會
日時 自九月八日 至九月十一日 四日間
場所 東大院里 (平壤大同門越便)
每回에趣味잇는勝馬投票가잇소
社團法人 平南레쓰俱樂部

登錄商標
萬世 만세
메일오래신는신
萬世고무
京城中林洞 萬世고무工業所 (振替京城一〇六三二)(電話本局三九八番)
所主(前大陸고무會社專務) 技術主任(前同會社營業主任)

가뎡부인

가을철과 읽을책의선택
책한권이일생을망처놓습니다

추석(秋夕)도몃칠남지안어서그러한지 밤에는 서ㅅ늘한곳이조흡니다 가을은 온것입니다 명랑한달은 씻슨 듯한 하늘에 걸려잇고 가벼운바람은 말러가는나무납사히로 도나이다 엽집덩넘어로들려오는 네인네의 글읽는소리가 몹시도맑고 또한뚜스한것갓습니다 더구나 가을밤은글읽거조혼때임니다 그러기에 책사에서는 이때부터 책이잘팔린다하야 새책을맨들어내고 또한묵은책 광고하거에 부산—할때엡니다 사람마다 가을이되면손에잡히는책이면다—읽어버리는—그러케독서열(讀書熱)이일에 일에밀아 그귀원고료(原稿料) 적게먹는 되지 안는글을사다가 빤허서광고술(廣告術)로속여서 팔아먹는 책사가잇슴니다그네들중에는 독자(讀者)의편에보다 자긔네의 리익만을위하야 책을맨들게 됩니다 독자된사람의호긔심(好奇心)을 리용하야 배를불리는사람이 적지안습니다 여긔에 일반가뎡에서는 주의를하여야합니다

사람이글을읽고 또한 읽고자하는욕구(慾求)는모르는것을알랴는데서 나온것입니다 누구는이세상人것이면 다— 알아야한다하지만 알아야할것은 알아야하고 몰라도조흔것은 몰라도조흔것입니다 몰라도조흔것을 알랴고할때에 벌서그사람은 어느구렁속으로 떠러지기 시작한것임니다 여긔에우리는무엇이던지 두가지로나노아비판(批判)하랴합니다 사람은는—— 아름다웁고 고읍고그러치안흐면 유탕한것을조하합니다다항용그러한것이만는——궁굼한것입니다다그러한책사에 서는 이러한 것으로써 책을맨들어 파는것입니다 술이란것은 사람을취케합니다 그러케술취한때가티 즐거운때가 어되잇겟슴니까마는그술에서깨여날때에는 자긔의몸이 개천속에 각구로박혀잇는것을발견하게됨니다 여긔에 후회가생기고자긔를 미워하는생각이듬니다 이러케술먹고깨인뒤마다후회하지만 그사람은 언제던지 술로생명을 끈케됩니다 여긔에 사람사람의 혈맥을 늘——새로운피로 차게하는 비록맛이 밍밍하나마밥맛만은못합니다 그러면우리는우리의압날에오래살자면밥을불—먹어야합니다 그런고로 그러한책은술이며 그러한책을 읽을때에는 그술에취한때임니다 그러케그런것에취하면 그사람은 필경은 수렁에발을 드되게되는때임니다 여긔에우리는 책을가리여읽어야합니다 이때까지 엇더한책사에서는돈—그러한마술(魔術)로써여러분을홀렷습니다

몸가든사람——몸가든사람 사랑이 몸가터달다고 누가하겟습니까 그네들은 사랑은달이라고하여서 젊은사람들을 속여먹엇습니다 또어떤사람은 삶(生)은혓된것(虛無)이라하여서 여러젊은사람들은 자긔손으로 자긔의목숨을 끈케하엿습니다 그러나 삶은 혓된것이아니올시다우리가긔차(汽車)를타고가는새움가티 우리가 사라나가는데는 무슨목뎍성(目的性)을 가지고잇는것입니다

우리는 잘사라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여현실(現實)을보아야하고 또어떠케하여야 잘살수잇는가를 생각해보고 힘써야합니다 특히 조선사람의삶의 의의(意義)는여긔에잇는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압길을지도(指導)하너을만한책을택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책사에서는그러한책을지어내기에힘써야합니다그네들의구실(口實)은돈—당전(當前)을두고말합니다그러나 우리조선사람이다—잘살게되는때에는 조선사람인서적상(書籍商)도잘될것입니다

인공영양으로 갓난아이기르는법 (一)
다섯살이면보통아이 일년데중과마찬가지

병우문데(病牛問題)는일반우유수요자에게 대하야 큰위험을 늣기는것이요 더욱이 젖먹는아이들이잇는가뎡——그중에도특별히 인공영양을 하는경우는작집으로 사랑하는 아이의 사활(死活)에 관한문데인만큼 머리쓰라린일이올시다 그러타고 곤텟스빌크나락도겐만으로도신용할수업는것입니다이러케생각하면인공영양을하는어린아이의건강문데는진실로불안합니다그러나일반부형들의대부분은상당히지식계급사람들일지라도의외에여긔대하야는별로히관념을두지안는것 갓습니다 녀학교출신의젊은어머니들은 잡지의 문예란을 정신업시읽으되 육아방면에대한일은읽어머니가 이러케하라것다」거나『동리집 할머니가이러케가르처 주엇다』거나하는극히잡박하고 위험한 양육법을쓰는이가 만히잇는것은 참으로유감이외다 이제일본엇던 소아과전문의 사가실제로영아양육(嬰兒養育)에경험한바를 여긔소개하려합니다그아이의부모는결단코건전한편이아니요비록병은알치마는보통이하의 데질을가젓습니다그런데삼월십사일부터팔월초순까지인공영양을한아이의성뎍숙데중증가표를보면

▲三月四日 誕生時 九一〇匁
▲三月二十七日——十四日만에 八八〇匁(三十匁減)
▲四月三日——二十一日만에 九五〇匁
▲四月十六日——三十四日만에 一貫四〇匁
▲五月九日——五十七日만에 一貫二七〇匁
▲六月六日——八十五日만에 一貫四八〇匁
▲七月六日——二十五日만에 一貫八〇〇匁
▲八月二日——百四十一日만에 二貫三三〇匁

이와갓습니다 二貫三三〇匁이면 보통아이 만일년데중과마찬가지입니다 또한상하 문치(門齒)가낫드라는데 이것도예외의일이올시다 젖먹이아이들이 잇는집 떠우이 인공영양에곤난을당하는분들을 위하야 그방법을소개하겟습니다

一、어린아이에게주는풀은우름들은 물론이요 수도물일지라도 반드시 한번 끌려가지고식혀야합니다

二、콘덴스밀크는 당분(糖分)이엽ㅅ만흐닷으로다른것과조화가되지아니하고락도—겐도자미가업서서미국제크림을사용하엿답니다

三、일반뎍으로정한포유(哺乳)의분량보다 조곰만히주엇습니다(계속)

만문

자미엇는우스말이잇거든써어보내주시여

좌측통행
江東 白頭山人

시골사람이 서울에 가서진고개(本町)통을편상점들의진열창(陳列窓)을구경하며올흔편으로가는데 순사가 이것을보고

『좌측통행(左側通行)!』

하고소리를지르니까 시골사람의말이

『왼편(左側)은 돌아갈때에구경하겟소』

집번디
鳥致院 春泉生

어뎐삼림주사(森林主事)가어연벽독하는 촌부(村夫)를 보고호령하기를

『지금어뒤서살어?』

『동넙어복돌이집뒤박(朴)서방집안집이오

『몃번디(番地)야』

『내집에는반지(指環)라고는하나도업소』

『집번디(家番地)말이야』

『여보아모리 가난하기로집반지(藥指環)야 업이겟소?』

의상
人事、衛生、育兒、法律、家庭

식빵의조코나쁜것 골아는법

문 학교에다니는아이들이아츰에는 밤에신어 우유와빵을먹고가겟다하는데식빵은찰붓사면돌이어 소화에 해롭다하오니 고르는법을 가르쳐주십시오(慶珠村一主婦)

답 식빵은만든에에잘구어지지안흔것은 물이어 위에해롭습니다 그런데 충분히구어지고안구어진것은것터케아느냐하면 빵을속으로 조금떼여서 손바닥에노코 엄지손 가락으로 비비여볼것입니다 잘안구어진빵은 밀가루가 그대로부서져나옵니다 이런것은 소화만안될뿐아니라살균(殺菌)이충분히되지안는것인고로식용으로써는 매우부뎍당 하다고할수엇습니다 조혼빵은 몸이곱고잘늑풀어오르며 란력이잇고흔비례로 중량이 가벼웁니다(婦人記者)

學藝

錯覺的文藝理論 (二)
金華山氏의愚論檢討
林 和

여긔에氏는吾等의理論的基底의差異가在하다氏는어듸까지든지『問題의核心은×××에잇는것이아니라 藝術그것에잇다』(金華山氏—現代評論六月號)고 充實한藝術黨의 信徒는말한다 그래도氏는左翼文藝家로서 푸로레타리아藝術論을支持한다

一切의事物이政治的으로闘爭치아니하면 아니될現段階에在하야 氏의말하는바푸로文藝家는藝術××에努力해야 한단말인가?

그러하면 好戰家인氏는勿論이러한提言을할것이다

『그러면 푸로藝術은藝術이아니란말인가 푸로레타리아藝術理論의確立을말하는氏가 藝術이란것을否認한다면——』(金華山氏) 하는이말로亦是反向하려고할것이다 그러나여긔에서 나는말하랴한다

我等은藝術形態 即藝術의時殊性그것을 全的으로忘却하는것과如한小兒病的迷忘을 敢犯치는안는다 또한氏와如히特殊性을藝術의基本槪念(푸로藝術에잇서서도) 에까지高揚하여서全體性을通한 特殊性乃至文(組織의 一般性을忘却치도안는다

吾等은어듸까지든지 藝術의特殊性그것을 認識하고行動한다 그럼으로우리는 푸로레타리아藝術家로서의 闘爭任務가잇는것이다 그러나 第三戰線을結成하고 無產階級의實際戰線에서逃避치는안는다

藝術行動은 그本質에잇서서 그것은 正確한生活意志의藝術的表現인行動이다 그럼으로生活意志를 떠난藝術行動은存在할수가업다 떠아서如何한性質을가진藝術行動이라도 그基底인實踐的意志는生活的이다

그럼으로 푸로레타리아藝術에잇서서는그것이本質的으로藝術上의分派로서發生한것이아니고根本的으로階級解放運動의一翼으로成長한것임으로푸로레타리아의生活意志即現存社會의否定을떠나서푸로레타리아藝術은存在치안흘것이다現階段에處하야 이問題에集中된다는것은當然한以上의當然이다 더구나吾等의 運動은이미自然成長的過程을지내고만다 그리하야現在뾰르조아藝術이意識的으로그發生的基底인뾰르조아社會의 階級的支配의 武器의役割을마튼以上 吾等의藝術도또한그것이아란狹隘한範疇를完全히止揚해야할것이다 그리하야全無產階級的政治闘爭戰에까지 轉化하야서푸로레타리아藝術行動이란部分的性質을揚棄하고 全體性的으로 藝術을認識하고把握치아니치못할것이다

三

그럼으로 現階段에在한푸로레타리아藝術의主體的指導理論이란것은如何히하야 優秀한藝術作品을生産할것이나하는것이基本問題가아니라 그것보다는如何히하야 新興藝術로서그生活意志即階級的解放을 促進키爲한그것으로서의 優秀한藝術作品을 統一的意識下으로集中하려는것이다

그럼으로 우리의 藝術理論에在하야 優秀한푸로레타리아의藝術作品이란것은 그것이藝術그것으로서의條件을具備햇다는이보다는 徹底하게 푸로레타리아의生活意志에奉仕하는作品을일음인것이다 다시말하면階級解放의最良의武器가될수잇는것이 優秀한푸로레타리아藝術作品이되는것이다

그러나金華山氏는 藝術理論構成에在하야 如何히푸로藝術作品을考察하엿는가

첫재『雷同性文藝論의克服』—(現代評論六月號—金華山氏)에잇서서藝術의基本槪念 即氏의今番所論과如히尹氏의『問題의核心은藝術그것에在한것이아니라 社會革命에含有하여잇다』『藝術에在하야無產階級運動의一翼의任務를다하고자한다』(尹基鼎氏)란所論을對하야『그것을藝術政策上態度로는 是認하나 그러나藝術理論으로서는 成立치안는다』(金華山氏)

이리하야金氏는 所謂藝術의政策을 完全히分化하야其間에在한 自身의立場을鮮明히하엿다 여긔에서우리는 嚴密히金氏의論旨에對한 究明을할수잇지아니한가 보다氏는이어서如斯히말한다

버래노래
鄭紅在

굿드람이 굿들굿들
우는그날은
벗장이도 벗장벗장
가뎌웁니다
× ×
선한바람 쏘여가마
장독대에서
벗장이와 굿드람이
노래합니다

가을물人소리
金海剛

한울은 맑고 푸르다
놉흔人속도 푸르러
구슬이 구을르는듯 맑은 물
人소리는
한울 소리가 가을 소리가
내가슴에도 가을은와서밝
은 소리 들리네』

가을색시

커다란한울에서 새여흘으는한
빨기 가을人바람은푸른 들
우를 가만히 걸어돌어
보드러운 치마人자락가려 선
선히 스처지나가니
키큰 수수人대는 흐늘리네
시악시 허리가티—
날흔 춤을 추네
딸랑거리는 옷人끌흠가티—
보라! 수수人대 춤추는 속
에
가을香氣에 醉한 해人빗해
겹은 가을색시의 볼은 얼
골을

東京에서開催된 日本數學教育大會를보고
◇中央高普 白南奎 (五)

나의적은늣김

이前이會에參席하신분이얼마나잇섯든지는몰으나 이번大會에만은공교히나一人뿐이엇다 나의지금저어보려는늣김이 果然우리朝鮮人인中等教員여러분에게同感이될는지는몰으겟스나敢히斷片的으로적어보면다음과갓다

一、우리朝鮮人教育界에는넘우도團結이업다는것이다 이번大會의協議其他處理中에教授上統一과試驗問題의批評及其發表等을보면얼마나불어운일인가! 우리는全道를通한教育者의會合이업섯슴은아니라多少의部分的會合이잇섯다하드래도항상不圓滿이엇스며無聲이엇다 이點은나스스로가反省하여도조곰도否定키어려운事實이다 多幸히지금에잇서서는 過去의試學의東西와資格의有無를안아서로反目하며疾視하든버릇은업서젓는줄로안다 그러나教材의修定及統一教授上의改善其他大同的行爲가 나로서는 現著히보히지안는것갓다 實로遺憾으로생각하는바이다

二、우리朝鮮人教育者는넘우나 一時的인것갓다 이번大會의研究發表中에 表耗한老齡의熟情的考案이며 豪壯한少年의沈着한研究들을볼때에 그이들의分化的發表인社會相을볼수가잇다 그런데나의習慣的觀察로만보게되면 그이들의研究中에는 넘우나好事하며가의無用의것들이만타고할만큼하다 그러나나는그이들의純眞한數理思想의表現에는感嘆할수밧게업섯다

三、우리의教育場所에는 넘우나同情이缺乏한것갓다 先生과生徒사이에悧悧한가병오활동다는것이다 勿論先生님이의외들의供給이몹비간다하게다 그러나 同一한責任을저그며讀書를말고가는우리의모두가안인가? !이에對한過去의實驗에 缺乏하다름것은업고 다만우리의頭下數實業學을이보면서 우리民族의將來를生覺해왓에 엇지悲感치아니할것인가 이번大會進行의內面을一瞥하면究竟한師弟間의會合이엇다 無限히嚴正하면서도靜粛스럽게 나는보앗다(끗)

邊境漫遊 (十五)
椎蓋 松園生
(東京小石川一隅에서)

◇赤池의淸風속에서

勝景의赤池 避暑의赤池는이네人것鮮地에秘藏되어왓섯다 그러나이赤池의眞價가世上에돌어나게될機運은 마츰내到來하고야만것이다 不遠한將來에國境鐵道가 이赤池邊을通過하리라하니 그러케되면 이偉大한勝景은世上사람들의눈과입에오르게되어 大自然의景勝에憧憬하는사람의무리들로하여금 이곳을찻게하고야말것이다 봄에는뭇노리로 여름에는避暑地로 가을에는鮒魚잡이로 渾境唯一의大遊樂地 大歡樂境으로化하고말것도豫想하기에어렵지안타

나는滿身에淸風을抱擁하고附近의勝景에醉하야池畔을逍遙한다 紅塵萬丈에俗臭가득한속에서꿀머리들을앓는나에게 이하로의淸遊가잇는것은無上한幸福으로생각된다 同時에나는親한벗들을생각지안흘수업섯다 마치조흔飮食을對하게되면親한벗을생각하는것과가티 이조흔勝景에이조흔淸風속에서네흘로놀게되는것이未安한同時에親舊들의생각이 몹시도간절하고 나의벗가운데는지금暴陽이나려쪼이는市街地에서뛰어다니는사람도잇고 冊床우에서꿀머리를알흐며 붓대와씨름하는사람도잇고 불人괴운 가름내가가득한工場속에서땀흘리는사람도잇고囹圄의몸이되어鐵窓속에서呻吟하는사람도잇다

新刊紹介

◇『朝鮮之光』(九月號) 朝鮮의資本은果然發達하는가(成一山) 時事評壇(晚吾生)秋題七篇(金東煥、抱石、李亮、李寅永金基鎭氏等七人)舊新羅國社會性과文學的傾向(金翰)結婚觀 女性觀(李觀求、金東煥、宋彥弼氏等五人)文藝評論(朴英熙)其他論文、創作、詩、等數十篇滿載 定價三十錢 發行所 京城府清進洞九五의二 朝鮮之光社 振替京城二三一七九番

◇訂正 八月三十一日本誌에所載된『所謂現段階와『푸로』文藝運動』第四回二段十一行—『目的이다』는『目的的이다』의誤요第四回四段三行—『無產群에게엇더케하여야할것인가』는『無產群에게엇더케하여야階級意識을注入할것인가』의誤
◇『數學教員會를보고』二回中米國의中學試驗入學은無試驗入學의誤

天氣豫報 晴一時曇

◇溫度 六日 正午 七九、七
◇比較 五日 最高 八三、七
◇日出前六時〇六 晝間十二時四九
◇日入後六時五五 夜間十一時一一

學生文藝募集

今般讀者諸位의要求와時運에應하야學生文藝欄을新設하기로하엿사오니各學校當局者의만흔後援을바라는同時에男女學生諸君은아못조록만히投稿하여주심을바랍니다

——投稿에對한注意——

◇中等以上의學校學生의投稿로함
◇投稿時에는校名과學籍簿에依한姓名을記입할일
(但匿名은無效)
◇投稿는一行十四字로百行以內로함
◇種類는、詩、想華、短篇小說、隨筆、肥行、雜文等

世界婦人巡禮

◇『리에취텐스테인』의농부의안해

『리에취텐스테인』이라면우리가 잘들어보지못한만큼 적어은나라이올시다 이나라는『오스트리아』와『스윗스렌드』 그사히에 쒸어잇는 나라이니 좌우에잇는 두나라의문화(文化)가 될충된나라라고 말할수밧게업습니다 이사진의녀자는 농부의안해이니 우리들이 볼때에는 얼마나 자유스럽고 풍푸한생활을하는지들 알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라녀자는 모다—온순하고 상당하고지혜가만합니다……。

새세상사람들 (四六)
夕柳 作 / 影 畫

八의六

황서방은 말문이 막혓다 제집에게나 남에게나 면말을할수업서서 잠잣고 또누구에게서 말이 나오지안나하고기다리고안젓다 제집은 다시그자리를 일어나면서 황서방에게 독긔가잇는 눈을 흘기며 나 밧그로나가면서

『나는 죽인대도 인제는 당신가튼이는 실어다니고 십지안소 말대로허오든하고 나가버린다 황서방은 그까짓말이야 귀에 들리는둥마는둥하게 흘려버리고 복주의넘우도실신하여 안저잇는얼굴을 가엽다는듯한 낫으로 들여다보고안젓다

『복주야 너는 엇절비말을좃하여라』

복주는 돌울뿐이오 벙어리인가도 의심할만큼 말이업다

『아비도 네속을 모르는것은아니다마는 괴왕에 못될일은 원수이 니저버리고마는것이 피차에 조흐니라그쩨 애초부터 내가 못허게말린것만못허게되엇다 도련님만하여도 자긔마음대로허시는일이아닌바에 엇더케하느냐 됨으로알어라 다지내노코보면 그대로 참人고살수가 잇느니란』

『……』

어린아이울래면 더울듯이이쪄야 달래는말에 복주는그눈에 눈물이 쏘다저나왓다

『아버지!』

복주의 울음석겨부르는 소리에 대맛추어 황서방은큰히 대답하엿다

『왜!』

『저말한마듸만꼭들어주서요』

『무슨말』

『이일은 도련님 오시도록만참어주서요』

『그런게아니라 도련님을 산양나가시게한것도 우리들그동안에 보냄이고 그런것인데 그때까지참어줄정십흐냐 되도못할것이니까 일직가는것이 올치안흐냐』

『그래도 저는……허요……』

복주는 참을수업는듯이 울면서 세죽세죽하여지는입을겨우모아가면서 말을한다

『아버지!저…저…는 죽어도안갈텝니다! 만약 도련님이다시오시서 그랑반또차가라고 허시면 그때는천만사람이 붓잡어도 저는 가려니와 그러치안코는 저는여긔를 살어서는 안여날러이여요……어머니……하——이엉에서 일어무며노코 말바친랑만꺼지 내버리고 저가가면 어떠로 무엇하려가요 아버지……저는!죽어도 안갈랍니다——』

황서방은 이말을 듯고안젓슬때는 마음이 알흐다는것보다는 가슴이 쎄개지는듯십헛다 제집도죽어도 안간다 맏도 죽어도안간다 그러고보면 살어서 갈사람은 제식구중에서 자긔하나뿐이다 차라리죽어버리고 이꼴저꼴다보지말어버릴까하다가도 자긔가죽으면 아즉어린커의지업는복주가 엇지되라십허서죽도못할경우엿다

『복주야 다 그래야 소용업다 그럴수록 네팔만더상허니 그러지말고 내말대로날딸어서 저 멀리 라관으로가서 살자 자연 올에가면 이저지는것이니라 가만이 다시생각하여보아라마는 안될일은 일직잇는것이 올치안흐냐』

『왜 안될일이간되요 만약안되면 저는그랑반 발미테서죽어버리고말어요 저가는것이 엄마 일코설리커서 또그랑반外지떠나서는 무엇을바라고뒤날에 무엇이그리조흐리라고살어요 나는 죽어도못가……』

『글세 그러케생각하여도 소용업서』

우는복주의 철업시 날뛰는꼴을보기가 답답한 황서방은또다시 달래엇스나 소용이업섯다

『그랑반도 나를 사랑하고나도그랑반을사랑하는데 웨소용업서요!』

『흥 우리는 암만하여도그런양반허고는 혼인을못하여』

『나는 그런건몰라요 알고도십지안코 돌이만 조와허면그만이지 그러고아버지!커는 그랑반을아주 떠날수가업시 되여버리엇서요 커는커녀가아니람니다 서집간것이나 똑가터요 나는인제는아모리하여도그랑반을떠날수가업는몸이라요』

『무엇?』

황서방은 앙히 캄캄하엿다 당장에 복주가 미울만큼머리가앗득하엿다 『요년이 요다지바라첫나』하면서 복주를바라다보는 황서방의 눈은범의눈보다도 무서웟다

毛生藥 후미나인 의靈効에對하야 急告

東京皮膚科의權威田中醫學博士가多年苦心研鑽한結果創製된毛生藥フミナイン은毛母毛囊의毛根基底部에對한營養、刺戟、殺菌淨血等、實로毛生에必要한要素의全部를具備하야毛는生케하며脫毛를止하는靈効가잇슴은眞實復言할餘地업시天下周知의事實인바帝都婦人雜誌의其壁良婦의友(東京乖陽堂發行大正十一年十二月號)에『癩病을治療한나의經驗談』中에採錄한左의一文을見함에及하야新히一段의力을添하는感이有하나이다、茲에轉記하야世上에아직フミナイン이잇슴을不知하시는老幼男女諸彥께알게하와遺漏업시フミナイン의靈効에浴케하고저합니다

002920

六十日間의忍耐로 今日의歡迎을得한吾
東京 富美子

부끄러워서執筆하기몃번이나躊躇하엿스나、가치會言하오므로우旨시는이게도이것을나누어드리고저하야執筆을하엿슴니다 저는二十四歲에까지참으로結婚을하자고는生覺지도못하엿고 다만爭論은엇지못할것이라斷念하고、人生을간히呪咀하면서孤獨하게사라왓슴니다。그것은제가女學校에在學中의일이올시다、남과가티十六歲의봄부터달마다잇는것도엄지안엇고、肉體上이나精神上에도別로탐할만한缺陷도엄시長成하얏습니다。그런나케게는幾年을經하여도依然히毛가生할곳에生치아니하얏습니다、날이가면갈수록저는漸漸憂鬱하여지며、잇서야할것이업는故로不具者라하는觀念에갓게支配되어잇섯든바其中에第一쓰리고슬푸고부쓰러운生覺을한것은毎日沐浴湯에가는것이엇습니다。그것이甚해저서寧히自殺하여버리면하는生覺을한것도二三次가아니엇습니다。다만그때由로저는一平生職業婦人으로立身하야獨身生活을繼續하려고決心하엿습니다。그래도間或新聞가든데毛生液의廣告를볼때는、살작사다가는혼자努力하엿습니다마는、되지안는藥이만흔때문니지조금도効驗이업서더욱더욱自己게는自然의恩惠가업는것이라고、보는사람外지情踈하게되엇습니다。그런데今年봄에田中醫學博士의創製責任毛生液フミナイン을覺得하야써보앗더니亦是잘낫는지는아니하엿스나、使用方法을記한것에依한즉져어도三十日晉通은六七十日이나連續하야쓰지아니하면効果不現이라함으로新驗에對하야非常히疑心은하면서도집흥리기로틈에씌전사람갑는것과가는마음으로根氣잇게六十日間이나쓰고잇섯스나、엇더케습니가。그러케까지悲觀하엿던저의變態은次次적어갓습니다。普通사람이所持할것을完全히가지는身體로되엇습니다。그때의저의깃븜그것이야참못으로다쓸수업슴만치되엇슴니다。저는只今은大藏省에勤務하고잇는官吏의妻로서、別달할만한不自由도업시經過하고잇는터인데、本誌의募集을拜見한故로저와가튼煩腦에잡혀여잇는可憐한이들이幸혀잇스면하고、應募한것이올시다。

참으로후미나인은禿頭病의人、脫毛하는人、혈집、숭니잇는人、先來毛薄한人、帽子로脫毛된人、眉毛薄한人、살쇠不良한人、머리에인人、男女間잇서야할곳에無毛、又는薄한人等諸般毛髮不足한데用하야靈妙觀面하게毛를生케하고脫毛를止하는田中博士의責任方劑이다。代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

全國到處藥店에서販賣합니다 品切時는代金에添하야發賣本舖로注文하시요用法書添付小包便으로急送합니다

發賣本舖
東京市芝區田村町十八 東京藥院 電話青山三五七八番 振替東京三一八三二番
大阪市赤十字病院前 東京藥院 電話南一二四六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朝鮮文詳細說明書申込次第進呈

九月六日부터上映
高人에우승과人氣도스물大洋全쪽도바우승社超特作大映畫喜劇界新星하리 랑그동氏 主演
映笑爆笑 初陣하리 全七卷
天下驚動의大笑劇!!初陣하리가나왓습니다
映畫!—恐怖中에오락과爆笑가넘치는大映畫!!
大連續大活劇 呪咀의家 四篇八篇上映
十一篇 일어버린 / 十四篇 地下會 / 十五篇 / 十六篇
시드스미스氏主演
마누라가第一이다 全二卷
꼭스、코메디
보면볼사록奇怪한問題中에드러가는奇觀!!
市內 優美館 電光三九五

九月六日부터特別大興行
二大映畫突然出現
—또다시歐洲映畫大會—
◇인되리알獨特코메디
喜劇 내마누라동동 全二卷
◇英國아라이안스社特作映畫
樂劇 公主의집시生活 全八卷
크리피쓰氏의祕名優 아이바아·노베로氏主演
英國映畫 에렌데리아 共演
다、이아몬드보다도稀貴한英國映畫!詩的이오美的이며敢的哀調를象한집시生活의畫帖!!두번볼수업는映畫다!
◇佛國시네로오만社超特作
아아똥두·벨네엣氏原著
佛國武勇外傳
佛蘭西一의快男兒
잔·안게로氏大熱演
海賊수루쿠루 全八卷
美女中에美姬 마리아·달하이 산夫人助演
산마로오의것츠른물결!잔약한女子를엽습하는괴이한그림자!義賊수루쿠루의勝利!壯快無比한大海戰!두번재구주영화는엇더할는지?

==豫 告==
大學생라운 그리드 全十卷 全八卷
京城府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二〇五〇
==九月五日封切 今週上映映畫==
國유社쭈엘作品 멜빌역온氏監督 로라라푸랜드—主演
脫線混線 스타는누구냐? 全九卷
國메트로골드윈作品 새스터키—튼主演
키—톤西部致富 全八卷
國유社쎌유스타西部劇 쪽키혹시氏主演
西部活劇 壯烈한一戰 五卷
十日封切豫定

國유파作品 曲藝團 全十卷
國유社유니이테드作品 너와가티잇다면 室中에라라도면 全六卷
國유社쭈엘特作 嵐의捕虜 全七卷
●特別豫告●!
假名 朝鮮名畫 落花流水 全八卷
洛陽의 걸 全二卷
영터리 三幅對 全八卷
最後의人 全十一卷
스테라따라스 全十一卷
恐怖의一夜 全十一卷
赤十字 全十一卷
우리들의바다 全八卷
사랑은盜賊變裝自在
團成社 光化門九五九

前途有望한 豆滿江流域狀況
永田開拓에는全部가朝鮮人
野田勸業課長談

北鮮의水田開拓은最近各方面에서注目함에至하야水利組合이完成된地方으로는以前反當十圓의地價가目下百圓을唱하게되는模樣이다元來豆滿江流域은地味가肥沃하고地價가廉價하고工事가容易한外에川水가非常豐富하야그대로도絕好의肥料가될뿐만아니라豆滿江流域의地味는大豆間島와同樣으로開拓만하면米、大豆等이多量될것이오間島는開拓될만한土地가四十萬町步로其中二十萬町步는이미開拓되어朝鮮人의所有로는九萬六千町步中國人이十萬餘町步를所有한바中國人은其所有地의거의全部를朝鮮人에게耕作식힌다

間島의不動產金融狀況은東拓이新規貸出을計劃하고잇는데目下龍井村、局子街、頭道溝、琿春의金融部가陸軍省이나外務省을通하야交付한軍事賠償金十萬圓其他五萬圓預金十五萬圓計三十萬圓을動함에不過하고同方面의土地金融은間島條約에依하야商租權을得하고잇는模樣이나아즉安心하고貸出하게는되지못하얏다此點이確立되기는如何든지困難하다國境의鐵道가完成되면北朝鮮의面目은一新할터인바北滿의貨物吸收로는滿鐵、中國鐵道、鮮鐵의三線이連絡되고港의設備도不完全함으로大連線과의競爭은困難하고如前히敎化以南이勢力範圍로되리라는說이잇더라

嶺美青年會 定期總會
去四日開催

平北嶺美에唯一한團體인嶺美青年會에서는지난四日下午一時부터當地天道敎大講堂內에서第一會定期總會를開催하엿는데同會長尹雍播氏의開會辭가잇슨後書記로부터會員點名과會錄朗讀이잇고會計報告와經過報告가잇슨後會則改正으로長時間討議가잇섯는데會長制를委員側制로變更하야委員을左記와如히選擧하고決議事項에들어가서嶺美學院維持의件外지討議하고其他一切事項은日暮하야討議치못하고다음委員會에서討論하기로可決하고同下午七時半에閉會하엿다더라

◇綱領과規則은畧

◇任員

委員長尹雍播 常務委員金秉泰 金明奎 普通委員吳龍三(會計) 吉寶淳(社交) 尹翊煥(調査) 安炳淳(智育) 安成瑞(音樂) 金綜成(嶺美)

繼續委員會

同日午後九時半부터繼續開會하엿는데同會新任委員長尹雍播氏司會下에左記事項을決議하고嶺美學院에對한任員選擧가잇슨後無事閉會하엿다는데當選된任員은왼에와갓다고(嶺美)

◇學院任員

院長李東楠 ▲理事金陵晉 李用欽 尹雍播 吉寶淳 金明奎 李炯立 ▲評議員尹顯奎 金鉉三 吳龍三 金乃賢 吉寶信 金昌鍊 金洛道 崔炳先 李正滿 尹平承

典山農青
去二十八日創立

新興郡東古川面有志靑年諸氏는當地에靑年團體가업슴을遺憾으로생각하야지난二十八日午後十一時에興山學院內에서興山農民靑年會를創立코저創立大會를開催하고臨時議長鄭河駿氏司會로規約과綱領을通過한後各友誼團體의祝文朗讀이잇섯스며左와如히任員을選擧한後同午後二時에盛況으로閉會하엿다더라(咸興)

◇執行委員

鄭河駿 林炳直 李孝涌 鄭河駭 鄭閱鎬 李尙柱 林東益 鄭河運 韓啓淵

松興溫泉 繁榮會創立

咸北城津郡松興里에서는地方繁榮을爲하야松興에잇는有志諸氏의發起로去一日午後三時에金炳奎氏家에서邊昌雲氏司會下에左記事項을決議하고左와如히任員을選定한後午後六時에閉會하엿다더라(城津)

◇決議事項

一、溫泉增築及修理

一、交通機關敏速交涉

◇任員

一、會長金炳奎

一、總務邊昌雲

一、書記財務權炳勳

元山府의 中等校期成會
保光校仍存問題로 緊急委員會를開催

元山中等學校期成會發起準備會에서는今春에廢校되엿던元山保光學校仍存案에對하야今月九日當地에서開催되는「캐나다」宣敎大會에서交涉할好機會가有함으로此를討議하기爲하야七日下午一時부터元山市榮會事務所에서緊急委員會를開催하기로하얏다고(元山)

松都店員委員會

開城松都店員會에서는去四日午後八時北本町聯合會館內에서委員會를開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얏다고(開城)

◇決議

一、大講演會開催의件

時日 九月十二日

場所 中央會館

演士 閔泰瑗、崔淳鐸

一、會費의件

每月十錢式으로

一、投書函設置의件

一、月例會의件

每月第一日曜를每月五日로

一、會報續刊의件

中斷되얏든것을繼續刊行

朱南敎育後援會

去八月二十二日咸北鏡城郡朱南面內有志七十餘名의集合으로當面所要洞實爲岩에野遊會를開催하고盛況으로終了하얏다는데當面長金鳳來氏는이期會를利用하야오래前부터腹案中에잇든朱南面敎育後援會에對한趣旨의說明과미리作成한規約草案을朗讀한後後援會組織에對하야討議하얏다는데該規約草案의目的을보와實로局部地域의兒童만爲한從來의朱南敎育形態에서全面的敎育을爲한에잇서一般의企待가만흐리라더라(鏡城)

江陵婦人夜學

江陵第七日安息日耶穌再臨敎會에서는家庭婦人의文盲退治를爲하야오는十五日부터當地林町禮拜堂에서婦人夜學會를開催하리라는데志願者는速히入學하기를바란다하며科目及講師의氏名은如左하다고(江陵)

科目 算術 朝鮮語 日本語 地理 理科等

講師 朴濟殷 吳鳳松 印三洙

●少年俱樂部發起＝黃海道延白郡延安에서는少年俱樂部를發起하고以來發起人들이努力하든바九月二日下午八時에本報延安支局內에서創立準備會를開하엿다는데委員은如左하다고(延安)

◇準備委員＝黃柱慶 吳東煥 瑾榮俊

間島에서 印刷工組合創立
八月二十八日龍井에서

間島에는三昨年以來各種團體가雨後의竹筍과가티勃興되어龍井市內만도現在에잇서서二十餘個의團體를세우게되는데다만한가지遺憾은階級意識으로보아勞働階級層內에잇서서中樞의位를싸지하엿다할수잇스며社會現狀으로보아文化向上啓發에잇서서當面의貢獻者라할만한印刷職工그들은지금外지分散狀態에서一個의團體도업슴을自他가遺憾으로認識하여오든바여긔에有意한斯業에從事하든吳昌洙、金泰東外數氏의發起로今年一月頃에發起總會外지잇섯스나諸般周圍의事情으로今日外지完全한創立을보지못하든바지난二十八日에龍井市內印刷職工組合創立總會를市內南監理敎會大講堂에서吳昌洙君의司會로二十一人의會員과五十餘人의傍聽客의集會下에開會하얏는데順序에依하야金泰東、全聖學兩氏의經過報告、會錄朗讀等이잇슨後臨時執行部를選擧한結果議長吳昌洙、書記金泰東兩氏가選定된後討議事項에들어가四大條項을圓滿히決議한後大會執行委員을選擧하고來賓으로부터金河玉、張錫感、李淵、呂南霧、金午山、尹容俊氏等의意味深刻한祝辭와十六通의內地各都市印工組合으로부터到達된祝文及祝電을朗讀한後議長吳昌洙君의發唱으로龍井印刷職工組合萬歲를三唱하고同日下午六時半에無事히閉會하엿는데同會의當日決議事項과綱領、宣言及規約、標語와任員諸氏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間島)

◇決議事項

一、會館問題에關한件

會館을建築할時外지臨時會館은會員金夏洛氏家으로定함

二、會旗問題에關한件

會旗製作은執行委員會에一任함

三、組各徽章問題에關한件

實行方法은執行委員會에一任함

四、朝鮮印工總同盟加盟問題에關한件

加盟하기로滿場一致로可決되다

◇宣言綱領規約標語

一、宣言＝우리는人道正義의旗幟를鮮明케하며互相扶助의精神을徹底히하야時代要求에順應하며人格向上에努力하기로함

一、綱領＝가＝우리는互相親睦을圖하기로함

나＝無產運動에協同步調를取하기로함

다＝時代的敎養과團體的訓練을期함

◇規約＝畧……

一、標語＝우리의活路는互相扶助에잇다

우리의活舞臺는團結의품속에잇다

◇檢査委員

李承鉉 崔弘載 安世煥 李相徹

◇執行委員

金泰東 崔弘載 安世煥 李相徹 吳昌洙 崔昌福 金鼎海 李承璐 林化聖

永川幼稚園 維持策講究

永川幼稚園은其經營方針이確立되지못하야關係者李鍾氏外四人은其方策을講究中이라함은이미報導한바어니와지난三日에다시有志가集合하야正式으로任員을選定하엿는데社會團體代表로參席한鄭時鳴金錫天兩氏도任員으로參加되엿다는바任員氏名은如左하다더라(永川)

◇任員

▲園長李璘錫▲園監金武生▲理事李鍾李光白外十一人

金浦에午鐘鳴動
來二十日부터

金浦邑內金陵靑年會에서는一般에게正確한時刻을周知식히기爲하야來二十日부터每日正午에當地禮拜堂에서午鐘을울리기로方今準備中이더라(金浦)

城津新幹 準備委員會
來十日設立

咸北城津新幹支會設立準備委員會에서는지난二日에本會의承認通知를接受하고同日正午에城津靑年會館內에서常務委員인李化善、東載、李眞淳三氏가緊急히會合하야爲先城津新幹支會設立大會를오는十日로召集하기로圓滿히決議하고同午後二時에閉會하엿는데當地一般會員諸氏는當日無遺參席하기를바란다더라(城津)

東海公普校 韓敎員駭擧에
咸北記者團調查顚末

吉州東海面公立普通學校首席訓導韓華淵君이同校六學年女學生許吉順(一九)에게同郡德山面에잇는董玉山이라는學生에게서艶書가온것을알고그것을期會삼아그女學生許吉順에게對하야엇더한野慾을가지고그두學生의關係를調查한다는口實로前記許吉順을隱密한處所에다리고가서乳房을調查하는等寫眞을박는等의여러가지駭怪한悖行이잇섯다는것이世間에暴露되어一般學父兄等의輿論이沸騰하며結局該校存廢論外지일어낫다함은旣報한바이게그仔細한事實眞相을알기爲하야本執行部에서調查한結果가다음과가틈

×는記者의問 ○은韓華淵의答

×貴校의六學年女學生許吉順에게董玉山이란男子로부터艶書가왓다는것을안일이잇는가요?

○네 안일이잇슴니다

×그에對하야干涉하얏다니事實인가요

○네—

×그래남에게로온書信을왜干涉햇는가요?

○그두學生의戀愛關係를끈차는뜻으로干涉햇슴니다

×그는무슨理由로?

○小學時代이니까

×그러면小學時代에는戀愛를못할가요?

○네—그는絕對로못하지요

×그런데어느때에女學生三人을寫眞박은일이잇다니事實인지요?

○네—잇섯슴니다

×그理由는那邊에잇는가요?

○雜誌社에投稿하려고함이엇슴니다

×그리고身體檢查를한일이잇다니事實인가요?

○네—事實임니다

×그러면女學生三人을모도햇는가요?

○아님니다처음趙玉仁을하고許吉順을하려고햇스나拒絕함으로檢查치못햇슴니다

×엇전차닭에許吉順만이拒絕햇는가요?

○네趙玉仁은衣服입은대로身體를檢查하고許吉順은裸體로檢查하려니까拒絕합데다

×왜許吉順에게限해서는裸體를檢查하려고햇슴닛가?

○吉順의胸部를보려고

×胸部는왜본단말이오!

○性的衝動을바더엇는지안바더엇는지를알기爲해서

×아까君이말하기를女子는十六歲부터性的意識을가진다고말하지안햇서요?

○네—그러나좀더仔細히알기爲해서(다만한氣色으로)

×그는그러타치고아까君이말한바와가티許吉順의裸體를檢查하려다가못하얏다니結局如何히解決하엿는가요?

○董君이보낸艶書맨끗헤「나의事情은許李峰에게물으시오』라고쓰여잇는文句를보아서許吉順에게淸白하얏다는것을아는同時에董君의片戀임을判斷햇슴니다

×그文句는許吉順에게身體檢查를施行하기前에알엇지요?

○이記者의問에는甚히困難하야무슨말을햇스면조흘는지太端히苦悶하는模樣이엇다

○네그럿슴니다마는좀더알려고(할수업는語調로)

×그런데確信할만한말에依하면許吉順을裸體檢查할때에『커고리와치마를벗기고알에바지를中部外지올리것고强制로檢查하는中에그女子가실타고拒絕하는말이자조나올때에君이말하기를『야! 엇지하야 그리도無情하냐!! 冷情하냐!! 나는네가五學年에부터마음이잇섯다 그런데네가그와가티 無情한줄을몰랏다』는것이다』라는말로서身體檢查를完全히마치엇다니事實인가요?

○그런일은업슴니다

×왜이일에對하야單獨的으로取扱햇는가요?

○모든것을秘密裡에서解決하려고그리햇슴니다

×이問題가社會에露出된後許吉順을私席에서멧번이나對햇는가요?

○그것은몰을말입니다 그런일은업슴니다

×아—그리고李鍾洛이란學生의父母와吉順의父母사이에그두學生의約婚說을듯고서여러번許吉順嬢을불러다가『李鍾洛이란兒孩와約婚할마음이잇느냐? 업느냐?』고몰어보앗다니事實인가요?

○그런일이업슴니다

當事者許吉順談

董玉山이란男子에게서所謂艶書가왓는데無識한나로서는그姓字인董字를알지못하야우리學校韓先生에게그便紙를그냥가지고가서董字를물엇더니韓先生은그便紙全部를보자고强要합데다 그래서할수업시뵈이엇슴니다 그때부터每日이나다름업시무엇을調查한다고하면서身體檢查를합데다 그래서身體檢查를할때에先生의强制로웃커고리를벗고치마를굴어헷치고알에바지를올리것고檢查을합데다 그쌔에실타고拒絕햇슴니다 그러하니韓先生이말하기를『야! 엇지하야그리도無情하냐? 冷情하냐? 나는너五學年부터나는마음이잇섯다 그런데네가그와가티無情한줄을몰랏든것이다』라는말을하면서웃내强制로身體檢查를마치엇슴니다 그리고또나에게서戀愛小說인靑春의曠野永遠의夢想等이러한冊을빌어간일도잇섯슴니다 그리고또이모든 事實이世間에暴露된後先生이나를請하기에간즉며外지지나온여러가지말을함부로남파하지말어달라고申申付托을합데다 이런일이두번이나잇섯슴니다 이뿐아니라우리洞里에李鍾洛이라는男學生이잇는데그學生의父母와나의父母와의사이에約婚說이잇섯는데이것을들은韓先生은 나를여러번불러다가『야비가李鍾洛에게 시집을갈마음이잇느냐업느냐』하고여러번뭇습되다 그래서나는이케過去에나에對한韓先生의醜態를지금와서가만히생각하여본다면나에게對한엇던野慾을품고한行動이라고밧게볼수가업슴니다(咸北記者團通信)

國境對岸에 馬賊團跳梁
村落襲擊說로 人心極度不安

阿片의採取가例히不利한結果對岸의馬賊團은過多이不可能하야얼마전頭目會議를열고聯合하야都市襲擊을企하고잇는程度外지의掠奪을하기로相議하고이의西部間島의接擴地帶에는優勢한馬賊의一團이移動을開始하야都市襲擊의諜報가頻頻함으로延吉縣守使는局子街駐屯의第九團(約四百四十名)及敦化縣城駐屯第七團(約五百五十名)에게出動討伐을命令하고다시奉天에援兵派遣을要請한다고傳한바이로因하야馬賊聯合軍과의遭遇戰은避하지못할것이라觀測하고特別히八道溝附近은馬賊跳梁의本據으로보는이만큼人心도極度에不安을感하고商務總會長等同地官民은防備의完全을期하기爲하야大洋五十萬元을支出하고市街의周圍에築한木柵(高六尺乃至一丈)을堅固한石墻(高廿尺厚二尺)으로改築하고砲臺六個所를九個所로增設하도록各各材料의蒐集을맛닷다고傳하나住民中에馬賊의압장이되어질거될으는不良輩가잇서자칫하면內部로부터守備를破壞할念慮가잇슴으로여긔에는全혀손을대운것과가튼狀態에잇다그리하야全滿洲에橫行하는馬賊의勢力은其數三千乃至四千이라고稱하는바某方面에들어온對岸에잇는各頭目의勢力調查는左와如하다더라

頭目	勢力	(銃器)	根據地
李山	一〇〇人	(一〇〇)	安圖縣
鎭順	一〇〇	(一、〇〇〇)	同
南山俠	八〇	(八〇)	臨江撫松縣
永山好	六〇	(六〇)	同
兩殿	一五〇	(一五〇)	長白撫松縣
雙房山	五〇	(六〇)	同
九州好	八〇	(一〇〇)	同
平仙鳳	五〇	(五〇)	撫松縣
天龍	四〇	(五〇)	同
鐵山好	一〇〇	(一、六〇〇)	長白撫松縣
野猫	一〇〇	(一、三〇〇)	臨江
白山好	六〇	(一、〇〇〇)	臨江濛江縣
占九州	一〇〇	(一、一〇〇)	石樺甸縣
上山鳳	五〇	(一、五〇〇)	臨江長白縣
北海里	一〇〇	(一、一〇〇)	通化臨江縣
好鐵山	五〇	(六〇)	輯安縣

더욱히山砲數門이有하나事實인지仔細하지는못하다더라

獒樹郵便怠慢
新聞一週分을한께모아配達

全北任實郡獒樹郵便所에서는郵便配達이넘어無誠意하다하야一般의非難이藉藉하다는데至急을要하는新聞配達에在하야도二里許되는三溪公立普通學校金學述氏에게오는朝鮮日報八月十八日부터二十二日外지五日分을二十四에一時配達하엿다하며一里許인屯南面梧山里金鶴培氏에게朝鮮日報一週日分을一時에配達하는如此한無責任한行爲에社會輿論은자못놉다더라(任實)

八月下旬 私鐵各線
連帶輸送成績

八月下旬中에鐵道局線對各私鐵連帶輸送成績은局線發私鐵行이五千三百六十二噸私鐵發局線行이七千三百八十九噸인데此를前旬에比하면私鐵行에對하야千三百六十噸局線行에對하야若干의어떤것이든지增加를示하야次次로輸運期에入한것임을示하더라

畵家劉氏來延
南畵展覽開催

日本東京中央美術協會南畵家劉景淳氏는故鄕인白川을기커去九月一日에延安에到着하야邑內有志諸氏의後援으로去九月三日下午一時부터當地面協議室內에서劉景淳氏南畵展覽會를開備하엿다더라(延安)

延白湖南面 私立學校好展

黃海道延白郡湖南面盡峴里居住하는朴濟根氏는同里에敎育機關이업슴을遺憾으로생각하고其間萬般周旋을한結果去二月初에私立學校를設立하고氏의家宅一部를敎舍로使用하며敎師는氏와金圭永氏이며現在生徒數는四十名이요學級數는三學級으로普通學校五學年程度外지를敎授한다는데未久에學級數도增加할터이라하며압흐로發展을期待한다더라(延安)

東蓄整理
重役一部反對

東拓의傍系會社東蓄의整理問題는滿洲其他에對한東拓의傍系會社의整理와共히具體化한것으로生牛의移出과牛豚의加工事業其他從來不業績인事業을中止하고專혀耕牛의貸付에力을注하는方針과共히案을立하야先般入京中인齋藤 岡田兩理事의諒解도大體得한模樣이나東蓄의中村專務荒井 久保等의重役은耕牛만으로는東蓄存在의意義가업슴으로整理案에反對하야目下變方이折衝中인바結局原案에幾分修正을加하야落着되리라고見하더라

關稅存廢를動機로 石油價減下運動
釜山需要者側物議沸騰
◇不應하면不買同盟?

全朝鮮的으로一般의需要品인石油는外國產品을輸入케됨을따라年消費額이互額에達함은數字上으로證明되는바이다近者石油關稅存廢問題로釜山商業會議所를中心으로需供兩者間에問題가惹起되는中인데石油商의內情이漏洩됨을따라需要者側에서는供給者의暴利에憤慨하야目下釜山牧島內에는『라이싱선』石油槽所의大『탕크』가配置되어每年數十萬噸을全朝鮮에供給하며『스탄다드』石油分廛도亦是牧島內에在하야互量을南朝鮮一帶에供給하는關係上釜山에서數個所의朝鮮人需要者側으로서『라이싱선』石油會社에廉價提供을要求하얏다는데若不應하는때에는不買同盟外지라도決行하리라는바其理由는大阪에서는石油關稅八十錢을分算하야七圓에實却하는데더욱朝鮮關稅는十九錢임에도不顧하고現價七圓七十五錢에實却한다는바結局一圓三十六錢의差額으로넘우나暴利를取함이라하며此問題가解決되어供給者側으로부터値下하게될時는全朝鮮的으로影響이不少하게되리라는바供給者側의覺醒을需要者側으로부터熱望하는바이라더라(牧島)

新興加平面 婦人夜學設立

新興郡加平面陵里는農村으로가장큰部落인데當地에農民靑年會가잇서男子敎育으로는數個所의夜學院이設置되어젓지안흔有益을주어오나婦人敎育으로는一個의機關이업슴을遺憾으로생각하여오든바當地有志李建鎬外諸氏의發起로지난二十一日에婦人夜學會를設立하고日常生活에必要한知識을熱心敎授함으로現在出席學生이一百五十餘名에達하야적은敎室로는收用키困難할地境이라는데特히李邦鎬氏는自己의事務를不顧하고無報酬로熱心敎授한다는데該夜學의責任主務는李邦鎬、李建鎬、朱在憲、韓基誠諸氏라더라(咸興)

淸道電燈競願
大興、瓦電兩社 送電線擴張計劃

最近慶北淸道에서點燈希望이千五百燈에達하야有望한바이에注目하는釜山朝鮮瓦斯電氣와大邱大興(電氣)는同地外지送電線擴張을計劃하고競爭的으로遞信局에認可申請을提出하얏는바이일에前後하야當地의弘中良一氏外八名은資本金二十萬圓(五十『가리』)의淸道電氣株式會社의設立을企劃하고亦是出願하얏슴으로이것도淸道의點燈問題를中心으로三角의競願戰을演出하고잇스며遞信局에서는愼重調查를進行中인바淸道電氣會社設立出願은料金高率로許可가不可能한模樣이고其外瓦電과大興의送電線延長은瓦電은密陽에서大興은慶山에서모다淸道外지의送電架設은十四哩이며出願料金도同率한터로當局도此査定에는커우이困難을感하는듯하며現狀으로決定은보지안흐나營業區域의接近한同時에兩社의送電擴張戰은漸次熾烈하는模樣이더라

迎日面에 郵便所設置
不遠許可될듯

慶北迎日郡迎日面은舊迎日郡廳所在地로西으로는朝鮮三大市場의하나인浦項市와東으로는東海岸富庶라고指稱하는長鬐、滄州를左右로어고南으로는大松、烏川兩面과北으로는慶北의關門인浦項港을두고잇서交通이實로四通五達의大驛輸合하는重要地인바아즉外지郵便機關의設置가업서當地住民七千五百餘와隣面인大松面의七千八百餘住民들의不便不利는勿論一個月에十二次開市에來往하는商民들에게는莫大한損失이잇슴은事實이오더욱이地方發展上不少한障礙됨을늣긴地方有志들側에서는鐵路所氏를責任者로하야再昨年十一月中當局에無集配郵便所設置의請願을提出하엿든바數月前當局의通知는無集配郵便所設置計劃을全廢하고郵便所設置申請을하면許可하겟다함으로前記鐵路所氏의手續一切를고치어提出하는同時에工事費二千餘圓으로執務所外지建築하여노코兩面數萬住民과함께許可되기를苦待하는中이라더라(浦項)

元山商議改選
日人側運動開始

元山商業會議所評議員改選은來十月十日로써擧行할터인데아직一個月餘라는日字가잇기때문에選擧戰에立할人物의如何는알지못하나今回는時刻營業稅에依한會員數의減少로因하야一大波亂을不免하리라고觀測되다하며約名熟中한日人側某某는벌서運動을開始하얏다고傳한다는바目下의形勢로보면今回의選擧는未曾有의緊張을示할터이라고一般은豫想한다더라(元山)

龍井侍天敎 青年黨組織

龍井市內侍天敎會에서는青年黨을組織코저얼마전부터準備하여오든바지난달二十八日午後二時에侍天敎堂에서五十餘名의會員이모히어創立總會를開하고柳青氏司會로여러가지決議가잇섯는데九月부터는每月小五日로月報를發行한다하며그綱領과委員은알에와갓다더라(間島)

◇綱領

一、우리는侍天生活을基礎로한新社會建設을期함

一、우리는事人如天의大心法下에新倫理道德의樹立을期함

◇委員

委員長朴文 庶務金圭復 經理金永振 布德金奉伯 康珍澤 敎養柳靑 韓松雲

煙草專賣局 職工收入概況
一日平均七十五錢

現在專賣局의職工數는各種工竝하야二千九百餘名이有한데此를工場別로見하면京城支局의千三百七十一名이最多數요大邱支局이此에次하며平壤全州支局의順序로印刷工場의六十六名이最少數인바此等職工의多數는男工이요女工은千百餘名即全體의三割五分餘에不過하고賃金支拂方法은功程拂과日給拂이有하야大多數는日給拂로全職工의八割을占하고殘二割이工程拂인데此等의所得은不一하야工長이면一圓十二錢으로三圓三十三錢外지되어平均二圓의收入이잇고見習은二十三錢으로一圓二錢外자即平均四十錢의賃金을取하며普通工은平均七十錢餘로其中優秀한者에게는三圓三十錢을取케되어工長을凌하는것도잇고最少한것은三十錢을職工全體의平均으로는七十五錢을밧게아니된다더라

大寧江防潮堤로
總督府에千餘住民陳情
復舊工事費의補助要望

平北博川郡中央地帶를貫流하는大寧江沿岸住民은年年水災로田畓과家屋의流失等慘狀이頻出하는故로大寧江의中流防潮堤復舊工事費補助에對하야지난七月下旬頃에同郡民代表로金相有、金秦浩氏三外가上京하야總督府에陳情하엿다함은各新聞紙上에旣報한바어니와爾來總督府當局으로부터何等의措置가無하야또八日二十二日附로住民代表朴來陽氏一千四十二人이聯署하야總督府當局에嘆願 提出하고急速히조흔措處가잇기를바란다더라(嶺美)

平北產業品評會

來十一月에宣川에서平北南部地方聯合第二回產業品評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當時에飛行機를利用하기爲하야平壤飛行聯隊에交涉하야지난四日午前九時宣川着列車로平壤飛行隊小尉中村學介氏가下車하야着陸할만한地點을選擇中이라고(宣川)

金浦精米社發起

京畿道金浦郡郡內面에서는該面長尹秉禧氏와有志吳順基氏外三十餘人의發起로去一日午前十一時부터郡內面協議會室內에서尹秉禧氏司會로株式會社金陵精米所發起人總會를開하고諸般事項을討議한바每株二十圓式總資金二萬圓으로會社를設立하기로可決되어方今着着進行中이라는데創立總會는來十一日에開催하리라고(金浦)

咸南春蠶產額高

本年度에咸鏡南道의春蠶掃立은交雜種白繭이一萬七千八百三十枚요貢繭이一萬四千四百二十七枚요純粹種日本種百五十八枚요中國種이百三十一枚歐洲種이十一枚計四萬二千五百五十八枚라는데前年에三萬八千二百九十八枚에比하면四千二百五十九枚를增加한바產額은左와如함

交雜種	白繭	一五四六二石
	貢繭	八三五七石
純粹種	日本種	六六石
	中國種	五六石
	歐洲種	四石
計		二三四九一石

昨年에[illegible]石에比하면三千九百三十五石의增加를示한다하며飼育戶數도昨年의四萬六千五百七十七戶에서五萬六百五十四戶가增加하엿슴으로飼育戶數八分七厘五毛掃立枚數一割一分二厘三毛現產額一割九分六厘七毛의增加率이된다는데그中에共同販賣로간것이一萬四千六百四十六石價格六十七萬二千四百四圓인즉昨年에比하야一千四百三十石이增加되엇지만今年은現價低落으로因하야十九萬一千八百六十圓이減少되엇다더라(咸興)

機業傳習所開所
北青三岐에

北青三岐機業組合은創立以來事業實務에奔忙中이라함은累報한바어니와去一日에泥谷面民公有建物인新舍屋에서組合員及來賓千餘名이雲集한大盛況裡에서理事高微浩氏司會로機業傳習所開所式을開하고經過並事業計劃報告와來賓의祝辭가잇섯는데今年은初年임으로傳習期間은爲先六個月로하고生徒는三十名을養成한다하며當日에各靑年團體와市民會에서各其松門을세워祝意를表하엿고當夜에全市街에는집집마다祝賀燈을달아輝煌燦爛하얏스며官民老少는樂隊를先頭로手舞足蹈하며우숨이넘치는氣分에夜間의市中은興趣가滔滔하야前古未曾有의機關이생긴것만치新記錄의大盛況을일우엇더라

醫師朴忠模氏
江原公醫로就任

天安邑大成醫院長朴忠模氏는今番江原道公醫로任命되어麟蹄郡三山醫院으로向코커去三日午前十一時京城行列車로家族과一同히出發한바紳士淑女의多數餞送이有하야惜別의淚를흘렷는데氏는昨年에當地에開業한後不過一年에天安靑年會委員과基督靑年會의幹部로靑年運動에多大한貢獻이잇섯스며더욱이自己經營의困難함도不顧하고無產者에게는專혀無料로施療한外에一般의稱頌이藉藉하엿스니將來有望한靑年事業家라고惜別을한다더라(天安)

天道敎友德濟會

元山天道敎會에서는敎人間友誼를敦睦히함과同時에相互間扶助를目的하는趣旨下에지난四日下午一時부터同敎會堂內에서元山天道敎友德濟會創立總會를開하고發起人을代表한徐庚洲氏가同會組織에對한趣旨를說明하고規約通過가잇슨後任員選擧에入하야銓衡委員徐庚洲、李重奎、李宗甲三氏로부터理事五人과監查二人을銓衡報告한結果滿場一致의贊成으로左의七人이選定되엇다고(元山)

▲理事 尹斗善 金寬熙 李宗甲 安容迪 金相鎬

▲監査 李鳳儀 金昌俊

地方人事

▲金承祚氏(本報安岳支局長)局務를帶하고五日豫定郡內各面에

▲朴老英氏(咸北靑年聯盟常務委員)間島視察次로來龍本報支局來訪

▲金永禎氏(朝鮮農人社特派員)同上

▲韓昌成氏(龍井濟世醫院長)二十六日自宅에서遭外難

▲尹容俊氏(本報間島支局長)局務를帶하고二十九日局子街에(間島)

◇寸鐵◇

◇吉州海東公普敎員韓某는女學生이바든艷書의發信者姓字를未解하야물으러온것을奇貨로알고

◇온갓弄絡手段을다썻다 密室로다리고들어가서裸體檢查를하엿는데그理由는性的衝動을바덧는지調查함이라고

◇肉體的衝動을밧고아니밧는것이先生에게何關이며學生監督上으로도알어야할必要가무엇이뇨

◇만일그가學生의品行을監督함이라면諄諄히訓諭함은可커니와『왜그리無情하냐』함은果然그意味가安在

地方漫筆
移住同胞의激增과 在間島有志의覺醒을促함
間島支局 一記者

向者本欄에間島로移住코커하는內地農村兄弟들에게參考와覺悟가잇기를바란바이잇섯스니그것은從來의移住民—그들은盲目的으로보아 아모見解이나또는間島다는地理的으로考究함이업시移撤한바잇슴으로그로말미암은離關또는悲運을遭遇하게됨을 畧論한것이며 딸아서이것들의弊害를內地有志諸氏의周旋과努力이어느程度外지미치느냐하는것이 問題가된것이다

◇勿論—物質精神의두힘을기우려奮鬪가잇기만한다면 不可能한바는아닐것이다 그러나距離의遠近—直接間接에依하야効果發生에 莫大한差異가생길것은 免할수업는것이다 그럼으로 筆者는 멀리故國에잇는兄弟들을보다도 直接으로熟練과經驗이만흔 在間島有志諸氏에게一言을促하여 今後移住民—그들을위하여의 指導援助가잇기를切實히바라는바가잇다

◇오늘날누구들이[illegible]形容으로나오는 移住民大衆을볼때에 [illegible]이잇고 感覺이잇는사람이면엇지가슴가운데울며나오는 [illegible]을禁할바이며 그들을爲하야一掬의넘치는同情의淚를앗길것이랴 그들이犧牲하는 가진苦痛과罪惡은 그들自身이아니고는 吾人은到底히 推察하기가不能할것이다 貧寒의살림! 流浪의生活은悽慘하고 困難집흔내 故土에서도 쓰림과압흠이 적지안컷거든 하물며 生疎한江山에첫발길을드되는 그들의압길에는 前目到處의 온갓오로만 커지는 모든事物은 그全部가 그들을 害하라는 敵이될지언정 一助의神은업슬것이다 이와가티 付託할곳업고도움업는 그들은 胸襟이쐬커지는듯한悲嘆과 鬱憤의悲慘을解할天地에 누구에게呼訴할가

◇엇자그것뿐이겟느냐? 橫被選命에부닥쳐서는虐待、凌辱、侮辱、無識、飢死、凍死等의險境은 낫낫치헤알릴수업다 面前하야 [illegible]漠한雪原샌이라면 모르거니와 얼마이나마압길을開拓하고만커 가는血統을끄러쥐고 따뜻한同胞愛를늣길수잇는白衣人이살고잇는間島라하면 엇재그들의警醒한現實과 漸漠을驚嘆의大焰과가티聯親할바아며 바람결가티자나커버리기를 許諾할수잇슬것이냐

◇우리는이케구래여 同胞愛를云謂하며 絕叫코커하지안는다 帝國主義가胎生된資本主義를土臺로하여잇는 根本的으로矛盾과 憧着으로얼거노은 現下社會制度下에서 窮迫과貧困의雰圍氣가운데서 헐떡거리는무리와 搾取、蹂躪에울고잇는可憐한生靈이 數多함을잘아는外닭이다

◇불을먼커ㅁ자 이것이無意識인듯하면서도 必然的으로絕叫케된다는것이다 그럼으로우리발등에떠러진불을 꺼줄사람은 오직우리自體가 잇슬것뿐이라하겟다 換言하면우리들은우리들과結束하며 合力하여모든意識에 싸홈을繼續하면서우리自體內에서 相扶相助가잇는그곳에 우리에게唯一한活路가展開됨을보게될것이다

◇이것이업다면 우리는漂浪으로生을支繼코커하는 아모希望과 條件도업슬것이다 날들이우리를壓迫하고蹂躪하기에 쉬여저안는다 거긔에서우리가 우리를待遇하는情조차冷淡하여 放任하면 우리는漂流하는 물결에밀리어가는 浮萍에서나올이업슬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在間島有志의覺醒을促하는同時에 移住兄弟 그들을위하야 指導機關을速히創設하며 無料宿泊所가튼것을附設하여서 치운에떨고 주림의 시달인그들에게 하로밥이나마 따뜻한寢食을 犧牲的으로提供하기를바란다(完)

全朝鮮少年少女作品懸賞募集

時日 十月一日부터三日間

出品期日 九月二十五日外지

出品場所 咸南北靑郡新浦面新浦里五九八番地

投稿規定 新浦少年會로請하시오

主催 新浦少年會

後援 新浦靑年會、新浦女子靑年會 朝鮮、中外、東亞 新浦分局

迎日脚戲大會

時日 陰八月十七、八兩日間

場所 浦項濱町廣場

賞品 上等 黃牛一頭 金五十圓 中等 廣木一疋 金五圓 (現金賞品總額百餘圓)

主催 朝鮮日報浦項支局

馬賊으로彼此誤認하고 中、保衛團과日守備兵激戰

장춘에나타난마적을쏫든일본수비대가먼저도처간 중국보위단원을마적으로알고한참동안대격전하여

腰折할쌈으로日本將校一名負傷

지난삼일저녁에 장춘(長春) 남방에잇는맹가둔역(孟家屯驛)으로부터 약삼십리밧게 마적약일백오십명이 출현하야 부근일대에는 전쟁판과가튼상태에 이르럿다는데 이제그사실을 듯건대 전긔맹가둔부근에 마적이 출몰하자그디방중국보위단(保衛團)이출동하야 마적과 얼마동안격전을한결과 마적은 어데로도망하고 종적을감추엇는데 그후그부근철도수위병(鐵道守備兵)일중대가 그소식을듯고 현장으로급행하엿는바 마적은 간곳이업고 마적을추격하던 보위단만잇승으로 이것이 마적인가하고총을노키시작하매보위단측에서는 이것이 또마적인가하고 쌍방에서 일대격전이일어나 한참동안 맹렬히 싸우다가 먼저보위단측에서 일본수비병인것을알고 곳 신호긔(信號旗)를들러싸홈은비로소 멈추게되엇는데 일본수비대측에서는 장교한명이 다리에 총상을당하고보위단측의피해는 아직알수업다 더라(장춘)

間島에馬賊 돌격

이미상한마적 십삼명(馬賊十三名)이 지난십이일오후칠시경에 송련향도목구(?)에 침입하야 조선사람부락에 초민을모아노코 『우리들은 결코 너의에게 가해하지안흘터이니 우리가잇곳을 떠날때까지 누구던지 절대로 촌락밧게출입함을금하되 만일듯지안는 때에는용서업시 총살한다』고위협하고 다시 『무엇이던지 관계업스니 속히지어바치라』고하엿슴으로 동민들은 즉시밥을지여 주엇더니 적단들은 저녁을먹은뒤에 어데로종적을 감추엇는데 도목구주둔보위단(倒木溝駐屯保衛團)에서는 만일을염려하야 정찰대(偵察隊)를파견하는동시에엄중히 경계한다고(간도)

聽衆六百의 紀念講演

상주지회 설립긔념

신간회상주지회(新幹會尙州支會) 설립긔념과선전을하고저하야 지난사일밤여덟시경에상주간장에서신간회지회설립긔념(新幹支會設立紀念) 대강연회(大講演會)를개최하엿다는바정사복경관의엄중경계리에 신간회지회부회장박정현(副會長朴正鉉)의 사회로비롯하야 신간회본부총무간사 홍명희(洪命熹)씨의 『이엇지하야중대사건이냐?』(是何以重大事件?)라는 연데로 열렬하고도의미심장한 웅변은 청중으로하여금만장의 박수성리에 동안재홍(安在鴻)씨가등단하야 『변동의조선(變動의朝鮮)』이란연데로 도도한웅변으로 수천어를 토하게되어 륙백청중의 박수성은 끈일사이가업서 장내의 공긔는 가일층긴장하게되어 공전의대성황으로동십일시경에 무사히마치고 후이어 간담회를 열게되어주객이 십여명이 한자리에모히어 한담으로밤을한시경에 산회하엿다더라(상주)

尙州新幹支會 大盛況裡에發會

정사복경관엄계리에

◇尙州初有의壯擧

경북상주(尙州)에서는 신간회(新幹會)상주지회(尙州支會)를 설립하고저 하야준비중이라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예뎡과가티지난사일 오전열시경에 준비위원회에서 악대를선두로 자동차를달려시내 각처로돌아 다니며선전『삐라』를뿌리고동십이시경에상주간견장내(乾繭場內)에서강후(姜㷡)씨사회하에 개회하게된바 회원이오십여명이요방청래빈을 합하야 이백여명의대성황을 이룬중 정사복경관(警官)의엄중한경계리에박순(朴淳)씨의 명랑한개회사로비롯하야회원 점명을마치고 축뎐축문(祝電祝文)을 랑독하고 이어서래빈축사 로본부총무 간사안재홍(安在鴻)씨와홍명희(洪命熹)씨가선거되어 의사를진행 하는데경과보고(經過報告)와규약을통과시킨후 임원선거는 전형위원오인을 선뎡하야 선거발표 케하기로하고 그동안 십분휴회를하엿다가 동두시경에 계속개회하고 압에와가티 임원선거발표가잇슨후 만세삼창으로 무사히폐회하엿다더라

◇任員氏名 會長鄭在龍 副會長朴正鉉 幹事朴東和 朴淳 李玟漢 姜㷡 金德周 池璟 辛 金尙龍 成麟煥 鄭喜默 趙鳳衍 蔡鴻錫 金基德 鄭 洪燮 申泳澈 朴瓚福

폐회를 마치고 그석상에서데일회간사회(第一回幹事會)를개최하고압에와 가티총무간사(總務幹事)를 선거하고회관문데를토의한후무사히폐회하엿다더라

◇總務幹事氏名 庶務朴東和 財政金德周 政治文化朴淳

◇自轉車窃盜

대구부남산뎡십사번디(大邱府南山町)최태후(崔泰厚)(二三)는 시내신뎡조양회관(市內朝陽會館) 고인(雇人)으로잇스면서 지난삼일오후일곱시사십분경에시내본뎡한성은행(漢城銀行)지뎜압헤다가박순화(朴順華)가세워둔 자뎐거(自轉車)를훔처어다가팔아먹으려다가 발각데포되어 방금엄중취조중이라고(대구)

洞民四十餘人 水組로肉迫

속다속다못하야나종에는 죽기로한하고쪼차갓다고

【말성만흔東津水利組合】

전북임실군덕치면 회문리(全北任實郡德峙面回文里) 동민사십여인이 팔월삼십일밤에 김제동진수리조합(金堤東津水利組合)에 진정을하야 출발하엿다는데 그내용을듯건대 임실군덕치면 회문리부근주민일천십삼인의소작답 삼십팔뎡보는 동진수조(東津水組)공사착수시에 동민이 단연히 이공사를 반대함으로 동진수리조합장해각중장(亥角仲藏)씨는 김봉두(金奉斗)씨를통역으로전북도내무부장립회하에서회문리대표에게 좌긔와가티 텰관을삽입(挿入)하야 수도를 보급하되

一、水量은前과毫末도減少가업서

二、鐵管은二十里距離로

三、鐵管水道修繕은水利組合에서永年負擔

四、水稅는耕作者에게永年勿論

五、回文里水道補給을水利堤堰同一竣工

이상과가티 오개조항을 리행하겟다는언약을하며 이개월후에 준공하겟다 하더니 그후오륙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동지가업승으로 동리에사는 조권(趙權)조용팔(趙龍八) 조희제(趙熙濟) 삼씨가 다시김데를가서 수리조합장을 만나 론난을한바 조합장말이 먼저번의 오조목을 다리행하자면 다액의 비용이드니위자료와 토디판상(土地辦償)을 해주겟다함으로 대표자 삼씨는도저히듯지아니하겟다하야삼일간을데재하다가 웃웃내 해결이되지아니함으로 전북도 내무부장을 심방하엿더니 그역모호한 언사만을 희롱함으로 삼백여명련서로 총독부에 진정을하엿던바 금번삼일에 조합으로부터

一、今年損害는今秋에辨償

二、根本解決은七月末日

이상이개조를 약속하고 또다시 기한이 경과토록 아무해결이업승으로 대표삼인이 김데를가서 조합장을 면회하매 조합장말이 본부(總督府)에서 결뎡을 해주라함으로 결관을노와 주겟는데 방금기사가 출장을하엿스니 기사가 돌아온후 삼일내로동지를 하겟다 하야대표인들이돌아온바 이십여일이경과토록 역시 아무동지가업는지라 대표자들이 쇠신으로 수삼차 편지를하나아무 답장도업승으로도에다가탄원을십사일부로진정을하얏더니팔월이십오일에 대표자에게 토디를매수하겟스니 개시하도록 기다리라는지라 한두번이 아닌고만 (歎願)에는도저히 그대로잇슬수업다 고일반은 극도로 분개하야 팔월삼십일밤에 각사 이십여인이 水利組合으로被害民一同이가서問題가如意히解決이못되면『生去死歸하자』는굉장한결심하에 사십여인이전긔와가티 김데를향하야 갓다는데 일반은조합의처치에주목한다더라(임실)

南滿青總에서 代表會議召集

팔월하순남만주에서

重要事項討議

중국길림성반석현(吉林省磐石縣)에근거를두고전만주를토대삼어대대뎍활동을하는남만청총동맹(南滿青年總同盟)에서는지난달하순경에 반석현 모처에서남북만주청년대표오십여명을초청하야중요한사항을결의하엿다는데 그결의한사실은 절대비밀에부침으로자세히알수업스나대략탐문한바에의하면결의한사항은세계정편에대한문데와현금중국시국에대한조선인의태도를결정하엿다하며 기타 사항으로는첫재동양피압박민족(東洋被壓迫民族)의해방운동과 또한전만주뎍(全滿洲的)으로민중운동을철저히이식하도록하기로하엿스며기타책반중요한사항을결의하엿다는데결의한사건을실현하도록착착진행중이며 대대뎍 활동을하는중이라더라

過重한小作料로 小作穀이腐敗케

욕심만흔디주의포학으로 작년벼가그대로썩게되어

전남장성군삼서면대곡리(全南長城郡森西面大谷里) 면사무소(面事務所)압헤는작년(昨年)벼(稻)가 지금까지 그대로잇서래왕하는인사(人士)로하여금만흔늣김을 준다는바 이제그자세한내용을 탐지한바에의하면 그벼는동리 칠백륙십칠번디압논구백사십륙평 약너마지기의 벼로서 령광군군남면동간리(靈光郡郡南面東澗里) 김영수(金榮洙)라는디주(地主)의논을권긔대곡리라승운(羅承云)이가지난해에소작(小作)을한것이소작료가 넘우과다함으로 디주에게 소작료를 감하야달라고 루루히교섭을하여왓스나 종시 듯지아니함으로 부득히 그벼를베인후는 몰이어 엇더한처의를바들가하야 그대로 베이지안코두엇다는데 원래그토디가 조치못한데다가 소작료는 너마지기에석섬너말이라는 엄청나는 소작료를 지정하야 지난갑자(甲子)년에는 동리 김윤칠(金允七)이라는사람이 소작을하야 벼일한알먹기는고사하고 부족액 륙원이십전을 물고다음해 을축년에는 내노흥으로 동리 리약우(李若雨)라는사람이소작하엿스나또 한타조(打租)한결과벼석섬너말이라는 판상을 부족되어 소작을 내노앗는바 전긔라승운이가 병인(丙寅)년에 소작을마타한것이 또한 실패를하고 농비(農費)만들고도오히려만흔 판상을 하지아니하면 아니되겟섯는데 지난해 구월중순경에 김종현(金鍾鉉)이라는디주마름이 추감(秋監)을나왓승으로삼서농민조합간부(森西農民組合幹部) 라승규(羅承奎)조병렬(曹秉烈) 김장환(金章煥)김홍빈(金洪彬) 변동갑(邊東甲)의오씨립회하에 권긔 디주마름은 석섬으로감뎡(勘定)하야간것을 나종 이심원 후에석섬너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왓승으로 넘우도억울하야논에서잇는 벼를 베이지안코디주다려 베여가라고 내버려두엇는데 쌍방이서로 량해치아니하야 지난해십이월 십구일에 동면장대리(同面長代理) 리강렬(李康烈)씨가 립회(立會)하고 벼를베이어서 스롬석집 한못을 사무소압헤 싸아노코 쌍방의해결을기다리는중 이라는바 그벼는일년이나 싸아두어서 우흐로부터썩기시작하야 반이상이 썩어먹을것도 별로히업는 모양이며 디주는 소작인을걸어 소작료 청구소송을 목포재판소에 데긔하야방금심리중이라더라

황소도적

면검정리삼백륙십삼번디(黃海道鳳山郡三道面甘井里)에원적을두고일정한주소가업는리종근(李宗根)(三二)은사일오후한시삼십분경에 고양군신도면 동산리일백칠십오번디 (高陽郡神道面東山里) 리재용(李載容)의집에서황소(黃牛)한필을절취하야가지고 도망하려다가 서대문서원에게발견되어 데포되엇다고

大邱에可驚할人肉商 數十婦女誘引放賣

◇唯一한販路는京城의遊廓과酒店◇

륙십된늙은자를두목삼아세명이공모하고

犯人은全部大邱署에檢擧

대구부중뎡칠십칠번디 (大邱府中町)최경도(崔京道)(?)와 봉산뎡일백오십번디 백도삼의 안해 장순금(鳳山町白道三妻張順今)(五六)과 동뎡 최영긔(同町崔永基)(?)의세명은 공모한후남의안해(妻)와처녀(處女)를유인하여다가 경성(京城)방면의 유곽과 술집으로팔아서 그들의배를불리든중 수일전에 또다시시내남산뎡김태술의안해 박경희(市內南山町 金泰述妻 朴敬喜)(一八)와봉산뎡일백오십번디백금선(鳳山町白錦仙)(一九)외한명을감언리설로 꾀여가지고서 전긔최경도(崔京道)의집에다가숨겨두고 한편경성으로팔기로 계약까지 데결하엿든바 대구서장남주형사(張南柱刑事)가이를발견하고 전부데포하야 엄중히취조중인바 그들세명에게 희생당한녀자가수십명이나되는모양이라더라(대구)

◇間島에強盜

룡정(龍井) 서북방으로약이십오리되는양가둔(陽家屯) 중국사람양모(楊某)의집에지난팔월이십일 오후열시나되어중국인강도두명이침입하야 주인양모와 그동생을결박하고 권총으로 협박하면서돈을내라 하엿스나 양모는지금돈이 한푼도업다고 하엿승으로도적들은 분개하야 가택을수색한결과 상자안에너어둔 현금이백삼십원과 의복몃가지를 강탈도주하엿다는데 이급보를접한 중국순경과 륙군수명이 현장에급행하야 범인을수색 하엿스나데포하지못 하엿승으로 순경국에서는시내시외를 경계하는중이라고(간도)

強姦當한子婦가 媤父를謀陷結頸케

시부는억울함을못참아 두번이나목을매엇다고

可驚할少婦의奸計

경북영덕군달산면주응동 (盈德郡達山面周應洞) 일백이십륙번디권덕윤 (權德潤)(?)의 맛며느리 오무산(吳武山)(二○)은 동군지품면삼화 (知品面三和)출생으로 얼마전에 권덕윤의장남정수(庚鶴)(?)의 안해가되엇든바 이래내외간에 금슬이조치못하야 지내오든바 지난달십팔일밤에 권덕윤의 부자는볼일이잇서 나가고 집안에 남자는업섯든테 동리한시경에 엇던남자가오무산의방에 침입한것을 오무산의시조모(媤祖母)가 수삼시간후에발각하고소동한바 범인(犯人)은도주하고 집안식구와머슴과가에서호동하야권긔오무산을듣초한즉 자긔시부가 내방에와다갓다고함으로권덕윤은애매한을 참지못하야 목을매여자살하라함을 여러사람이 구원하엿던바 자부는 내버그가터변명할으

生活難! 生活難! 二人이隔日縊死

농촌인의생활도파멸된다

경북상주군청리면원장리 (尙州郡靑里面遠墻里)에서김도현(金道鉉)의처김음전(金音田)(?)은 지난삼일밤두시경에 자긔방 시렁에다가목을매어죽엇스며그 이튼날오후두시경에는 동리인월로리(月老里)에사는 정흥진(鄭興釧)의처김성녀(金姓女)(?)가 또한자긔방에서 목을 매어죽엇다하야 이급보를 접한소관주재소에서는 한때눈뜰 사이가업시 분주하엿섯다는바 이제그 두녀자들의 자살한원인을 들으면 그들은 원악간구한살림에반백을살아왓스나 도모지 압흐로 살아나갈길이 망연할뿐 아니라 조석을 난게하게 되엇승으로 할수업시 극도로 이세상을비관하고 이사회의 생활디옥을저주하면서 멋칠을두고 울음으로지내다가 그와가티 참혹히도날을거듭하야죽은것이라더라(상주)

◇孔教會解決

신구량파의 분쟁으로 오래동안 회관을봉쇄하엿든국자가공교회 (局子街孔教會)는근자에이르러 언길현서(延吉縣署)로부터회관문을열고 다시 경영하여가라는 허가를어더가지고 요사이에는 회원들이 어분망하다는데 이케부터는 아마장의도유사(掌議都有司)운동이라든지신구량파(新舊兩派)차홀가튼것이 업스리라고 일반은 주목한다고(간도)

漁父溺死屍體

목도해안에표착

부산목도(釜山牧島)청학동(靑鶴洞)부근해안에 지난삼일오후여섯시반경에 한삼십 사오세가량된 오부시테하나가 떠나려온것을 근처에서 고기잡든어부한명이 발견한후즉시 수상경찰서로 알린바 의사를대동하고경관이탐검한후 부산부로 인도하엿다는데 주소와성명은 전혀불명하나 부근어촌에서는 어부가 바커죽은듯하다더라(목도)

假醫질하고 罰金百圓

즉결처분바다

평남강서군 함종면홍범리 김석길(平南江西郡咸從面洪範里金錫吉)(?)은 의생허가가업시지난음사월십오일에동군쌍룡면귀명리송용혁의처전순복 (同郡雙龍面歸明里宋用赫妻 全順福)(二九)이가병으로고통하는것을자긔는의생인데 병을곤쳐 주겟다하며진단한후 정신병이라 칭하고술집에팔아서 바르게 한후약갑으로 돈이원을바다 먹고또는 지난오월오일에 자긔집에서 동리리문욱의처김씨(李文郁妻金氏)(?)가와서 병을고처달라한바진단한후월경부됴(月經不調)인데자긔약을 쓰면아주 나흘수잇다하며 도집원을밧고 밤나무배나무솔잎등의 삭정이를말리어가루를만드러 일곱봉지를주엇고또는 그달십오일에 자긔집에서가든동리에서온장창하(張昌夏)(?)를 립병이라고진단후창출(蒼朮)솔잎등의 세가지를말린가루여덜봉지를 준후돈 십칠원을바다 먹고여전히 이와가든 터리업는 행동을감행함으로 이를탐지한경찰은인치취됴한후벌금백원의즉결처분을하엿다더라

平壤小火

지난사일오후 다섯시반경에 평양부륙뎡(平壤府綿町)천상(川上) 솜트는공장(打綿工場)에서 불이일어난것을 약삼십분동안에 진화하엿는바 손해는 약삼십원에 니르럿스며 원인은트는솜속에 성냥(燐寸)이들어잇든모양이라고(평양)

계집팔아먹으려다 일허버리고告訴질

중국인과공모하야제계집을 팔아먹으려다가못하고무고

간도 베감자(大坎子)에사는 서승팔(徐承八)은 그안해김성녀(金姓女)를일코 룡포동에사는중국사람 임문화(任文鶴)를걸어 고소한사건에대하야 연길경찰서에서는 권긔중국인 임문화를엄중취조한결과 그의말이『조선사람 박형수(朴衡洙)등 칠팔명이 그녀자를다리고가는것을 보앗스나 조선사람들이하는일을 중국사람으로서 간섭할필요가업다고 생각하야 그뒤를딸으지 안엇스나 그사람들의주소성명을 분명히아노라』함으로 취됴를마치고 순경네명과 역한명을 출장시켜 박형수등을붓드러다가조사해보앗더니임문화의말과는 사실이 틀림으로 조선사람들은 모두내어 보내고 임문화만 두엇다가 사실이 미화함으로 원고피고등전부를 디방경찰서에 압송하엿는데 경찰서에서는다시취됴한결과중국인임문화와 원고서승팔이 사이에 서서그안해를 중국사람에게 팔기로 벌서여러날전부터 밀약이잇서 백원을밧고 팔아먹으려든 계획이 김성녀는 미리도망하엿승으로 임문화와서승팔은 공모하고 그와가티 조선사람들을 무고한것이판명 되엇다더라(간도)

불상한老農夫의 피나는돈을詐取

눈물이업는악독한려관주인

고향으로오는사람려비편취

합이빈 십륙도가 고려려관주인 김강(哈爾賓十六道街 高麗旅館主人金剛)이란자는 손님의돈을 마탓다 주겟다고하야 마튼후돈을감쪽가티 쎄아먹고 빈주머니속에는 밤배갑과 그외다른조히조각을너어 돌오내어 주엇다는 사실이잇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충남부여군 옥산면 학산리(忠南扶餘郡玉山面 鶴山里)에잇든 리종철(李鍾哲)(五二)이가 지금으로부터 삼년전에자긔고향을떠나 길림성호림현(吉林省虎林縣)에가서 농사를하여 근근히 지내오든중 금년부터는 팔십이넘은 자긔모친이 이제는 죽겟스니 고향으로 가자함으로 할수업시 농사하든것을 다팔아 대양(大洋)으로 구십원을 만들어가지고 전긔합이빈 고려려관으로와서 주인다려 그돈을금화(金貨)로 밧구어달라한후 그이튼날저녁차로 합이빈을떠나 장춘으로 나오려하는데 전긔려관주인 김강이란자가 뎡거장까지 나와서 하는말이 이곳은중국인 도적이만흐니 돈을잘 간수하라 하면서 만일중국인이 돈만보면 곳쌔아서 갈터이니 돈과차표는 내가마탓다가 차가떠날 시간에 주겟다함으로 주인의말을 그럴듯하게생각한 순직한 농민인그는 곳자긔가가젓든돈 륙십팔원과차표두장을 내어주엇는데 소위려관 주인이란자는 그것을마다가지고 차중에서 왓다가다하더니 잠간수하라하면서 주고갓는데 이돈을바든 전긔리종철은 하도그자의행동이 수상함으로 자긔가맛젓든 주머니를다시풀러 보앗든바 돈은간곳이업고엉터리업는 빈당배갑과 조히조각만 들엇승으로 그제야속은줄알고 곳차중에서 헤매이며고려려관주인놈이 내생명을 쎄아서갓다고 발광을하게되매 중국경관이 케지라못하야 합이빈에서 한덩거장을나와 하차를시켜가지고 다시합이빈으로 다리고갓는데 리종철이는 곳합이빈일본령사관 경찰서에가서 그사실을말한후 그돈을찻게하여 달라고애원 하엿든바 경찰서에서는 곳전긔고려려관주인 김강이란자를 데포하여다가 심문하엿스나 협잡에농한그자는 종시자백을 안음으로 경찰서에서도할수업다고 방면하여 버림으로 눈뜨고돈일흔 리종철은 할수업시 로모를다리고 장춘으로나와 동선려관(東鮮旅館)을차자가서 전후사실을말한후 려비를 구할째까지는 몸이나용의 타하게하야 달라한후 고향과가라각처에 긔별하야 려비가오기를기다리고 잇다더라(장춘)

002921

運動競技

第五回實業野球 來廿日부터開戰

第五回全朝鮮實業野球大會는來廿日부터京城球場及鐵道球場其他에서開戰될터인데準決勝外지는無料로決勝에만有料이더라

神競蹴球豫選 來廿日十月一日兩日間 培材球場에서

來十月十四日로五日間開催될第三回朝鮮神宮競技大會蹴球部豫選大會는來廿日(午後에만)十月一日(終日)兩日間培材高普運動場에서擧行할터인바靑年團은體協側의推薦으로京城蹴球團에決定되엇고中等學校는其數가만음으로不得已豫選을行케된것이라더라

開催日時=九月三十日(午後一時부터開始)十月一日(午前九時부터午後六時外지)

出場資格=一個年間在學生에限함(但今年三月의卒業者)

申請期限=九月二十五日內로京城若草町二二朝鮮體育協會로(電本三六六八)

銀行團庭球聯盟 리ー그

戰第一回殖銀對漢銀戰은五日午後四時부터明治町京取코ー트에서開始殖銀大勝하얏더라

(漢銀)			(殖銀)	
[illegible]	勝允	1——4	安野	遠藤
[illegible]	在東	1——4	安岩	[illegible]
朴	京滿	1——4	河文	永村
金小	山井	0——4	山崎	五西
永久川金	保柄	1——4	吉吉	田成村

全朝鮮實業庭球

京城運動具商主催의第八回全朝鮮實業軟式庭球는來廿四日京城運動場에서擧行할터

今日의運動

△徽文對全龍中野球戰은午後四時부터京城運動場에서擧行한다는바入場料는卅錢廿錢이라더라

▲四銀行庭球리ー그第一回戰商銀對殖銀戰午後四時明治町日取『코ー트』에서

라듸오 七日放送 부로그람

午前九、〇五定期放送 午後〇、三〇講演고십프論李慶孫 一、三〇定期放送 六、〇〇狂言張子金太郎狸退治메구미會 라듸오드라마洛陽의秋(一場)新興劇放送寶任和川春黎 小唄瑚하나 落語法華豆腐柳亭燕路 淸元夕立(貸浴衣汗雷)淸元吉壽太夫三味線淸元相路 뉴스其他 歌詞數種朝鮮卷金素姬 朝鮮曾律金相淳外三名 翌日順序發表

僧房悲曲 [105]

獨鵑 作 夕影 画

斷無禁 行興影撮

유서(遺書)(四)

영일아 네가만일 네동복동생이 아닌다른녀자와 화촉의 인연을 일우엇드면 나는 남몰래얼마나 깃버하엿스랴 내가 일평생며느리라고 불러보지못할 인연깁흔 며느리를 위하여 그얼마나숨은 긔도를 올렷스랴 은숙아 네가만일 허구만흔남자중에서 영일이를 제한다른남자와 배필이되엇다면 아아나는 얼마나그사위를 깃겁게 마잣스랴 그러나이무슨 운명의 애닯은희롱이냐 억만의남자가잇고 억만의녀자가 잇는 넓고넓은 이세상에서 너희둘이 결혼하지안흐면 안된다는 것은 그무슨 눈물겨운 인과관계이냐 ?……

은숙아 네가운외사를 나다닐때에 나는얼마나 가슴이조리엇스랴 그러나 너희둘이 엄정하고 친움바나 친누나와뚝가튼관계로 지낸다는것을 들을때나는 가슴을쓰다듬고 안심하엿다 그리하야 나는그얼마나하누님께 그윽한감사를 들엿는지모른다

영일아 은숙아 그러나나는너희둘이 오누가구향을볼째마다 참을수업는 불안에 바늘방석에 나 안즌듯 송구하엿다 그것은 너희들의 젊음이주는 나에게가장두려운 불안이엇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마츰내젊음의길을 밟고야말려할째 결혼을하려할째 나의마음은 과연엇더하엿스랴 아이들아 너희는맛당히말하리라 『그러면약혼당시잇슬그째 웨그리유를 은숙에게만이라도 일러주지 안엇느냐』고

그러나 아이들아 이것은나에게 책하지말아다고 약사발을 드는 이순간까지라도 생각하다가 마츰내는 이글을쓰는 나에게그것을책하여괴롭히지말아다구……

이세상이 넓고 사람이 만타해도 내가그리한업시 나의 이십륙년권에 어둠으로 사라저버린비밀을 들어줄사람은 업섯다

은숙아 너도나의딸은 될지언정 나는아니다 나는 이것이비에게조차말못하고 이시간에 이른것이다

내아들아 딸아 이어미에게도 이십륙년권 이라는 젊은시절이잇섯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이야기는이십륙년권보다 좀더 올라가서부터시작하여야할것이다

나는 열여덜살되든해봄에 엇던량가집며느리로가게되엇다 남의 안해로써 불행하엿다 출가한지 오년후인 내가 스물세살되든해가을에 그남편은 병으로세상을떠낫다

그후로 나는 남편업는시집에서 업는남편을 추억하며 바람부는황혼 달밝은새벽 평상다운생활을하고잇섯다

그쌔이다 나는 청춘에세상을떠난남편의 명복을빌기위하여 승방에서 백일긔도를 올리게되엇다 영일아 그승방이라는것이네가이십칠년간 쓸쓸히 자라난운외사승방이다

그쌔의 그젊방주가 곳네의고독한생명을 키워준 네의시님『해암』이엇다

영일아 나는 지금세삼스러히이십칠년전 사십의 고개를막넘은 풍신조로 젊잔은중 해암이내눈압헤떠돈다

지나간꿈이라기에는넘우도이켜지지안는 단적단적한 추억이지금의나를 괴롭힌다 모든것을너희에게 알려주기위하여 든이붓이것만이케는 손이떨리어 붓쯧이흐린다

아즉도 백일긔도가 뭇이나지안흔 엇던날밤이엇다 내가홀로고요히누은 어두은밤에는 한개의검은그림자가 나타낫다

영일아 이검은그림자의 주인은 누구이엇겟느냐 그것은곳 방주해암이엇다 너의시님이엇다

그것이곳 네가지금까지 모르고지내온 너의 아버지의그림자이엇다

절에간색시가 방주중의 말을거절하기에는 나는 해암이라는중에게 미약하나마 호의를가지고잇섯다

금일의 인과를 낫는그밤이지난뒤로는 나는 텀불보다 는재人밥에솔리엇다 몰아간남편의 명복을빌기보다는 나는나의 젊음을노래하엿다

수도하는중과 젊은미망인의 사랑은 마츰내 원인과결과를분명히짓지안코는 마지안엇다 나는 마츰내수도승의 사랑의씨를 밧고야말엇다

나의몸의 이상이 다른사람의눈에뜨일만할째에 나는 모든사람의 눈압헤서사려젓다 그리하여 『해암』이정해주는비밀한곳에서 빗슬등지고 일곱달이라는 어두운세월을보낸다 나는 그동안에 어둠속에서 자라는 네의생명을 얼마나 저주하엿스랴 어둠에서 어둠속으로 무덤버리려는 악착한마음을 일으킨적도 한두번이 아니엇다 그러나 나는약하기째문에 너를나코야말엇다 그리하여 강보에싸인피 무든생명을해암의 지시대로 여뜻한어머니의 품을떠나 어두운새벽 쓸쓸한절마당 한구퉁이에 떨어지게된것이엇다

너를조심히 내려노코 조고만돌로 강보한구퉁이를 눌러노코멀리든그림자를 어둠속에 뜨사라진든 무서운나의 발자최소리가 지금도 나의귀에는 남아잇는듯하다

脫毛劑ラブル 一分間에 玉갓흔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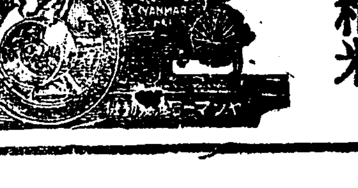
男女顔手足 胸毛其他身體中의無用毛을脫毛하고그發生을止함

責任保證 ◆初ノ姉實 無料試送 ◆定價 特一圓 大三圓 ◆說明書 申込次第進呈

鶴岡藥品部

ヤンマー 石油發動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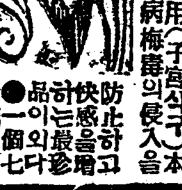
籾摺、精米 나쇼나루精米機



目錄進呈 京城驛前 山岡發動機京城支店 釜山府富平町一丁目 加藤商店機械部 群山府榮町 渥美商店 咸興大和町三丁目 松下商會

防毒美感 最新삭구

本品은世上에常用한粗惡品과는 弊工場의特製良品이오 用하면長時間快感을주고心身을强壯케하고絶對로病毒의侵入을防止함◎宣傳하기爲하야五百名限하야金一圓以上註文에는數島삭구一本을無代進呈함◎上製一打八十錢▲二打一圓五十錢▲特製一打六十錢▲二打一圓●婦人用(子宮삭구)一本은月經時며淋病梅毒의侵入을防止하고快感을增하는最新珍品이라



十錢●變形삭구▲陰囊、陰莖短小 少女交接支障의분이使用하면滿足 足一打一圓五十錢●女子專用 (女子專用삭구) ●子宮保溫器●送料各三十錢 無代進呈(但切手三錢同封)

東京市京橋區西紺屋町六番 振替東京六二二六〇番

三光社고무製品部

地理正經

浮陰浮陽九宮八卦와九變數置를 石張先生이알기쉽게해석하여발행하오니청구해보시압

發行所京城府水標町三四番地

林 震 詰會

今年度產米 百萬石增收乎

二十四日一回豫想發表

米二十四日에는朝鮮內米作第一回收穫豫想이發表될것인데豫想에對하야는

一、昨年一月부터五月에至한朝鮮內豆粕消費高는百十六萬七千五百十六(百斤單位)으로金額五百七十五萬一千八百二十三圓인데本年同期는消費高百六十八萬九千二十一斤金額六百九十五萬八百六十圓으로結局五百五十三萬一千五百斤金額으로百十九萬九千三十七圓의增加이다

二、二百十日도無事히經過하고其後天候도順調인것

三、灌漑改善에依한植付面積의增加와正條植付의株數가增加한것

四、豆粕以外의普通肥料도當局의指導奬勵에依하야施肥料增加한것等

의諸理由에依하야昨年의實收高一千五百四十三萬石에比하야적어도百萬石은下不하는增收를擧할수잇스리라고支人側에서는看做한다더라

對外貿易

八月中朝鮮對外國貿易額은輸出二百三十五萬九千餘圓輸入七百四十九萬四千餘圓合計九百八十五萬四千餘圓으로前年同月에比하야輸出은增加八十三萬一千餘圓輸入은減少十萬餘圓 結局合計七十三萬一千餘圓의增進을告하얏다그리고一月以來累計額은輸出一千六百九十八萬七千餘圓輸入八千五百七萬二千餘圓右計一億二百五萬三千餘圓으로輸入超過六千八百九萬餘圓의計上인데此를前年同期와比較하면輸出十四萬四千餘圓의增加이나輸入六百三十五萬八千餘圓의減少임으로結局合計六百二十一萬三千餘圓의減少를示하고入超額亦六百五十萬三千餘圓의驅減이다次에本月中重要品出入額을前年同月과比較하면輸出은木材 滿產及大豆出荷不振을示하야스나他는一齊히出荷을告하고其中洋灰砂糖及魚類等의出荷好調를示하고또輸入은郵材와天津所用으로三十一萬五千餘圓의增進을告하얏다輸入은藥劑草 石灰 木材 炸藥 毛織物 粟 豆類砂糖及鹽等多數의貨物이增進한것이잇섯스나外米減少百六十一萬六千餘圓을示하고其他石油 玉洋木類中國麻布及商藥等도入荷不振이더라

日銀利下 實現在邇?

(東京電) 政府與黨의景氣恢復策에基하야日銀利下說이昨今에頻繁히傳播되어大藏省當局及日銀當事者는與黨側의進言에對하야從來其時期가아즉아니라고하야왓스나財界는恐慌以來現著히恢復되고金融市場도또만흔故當이되엇슴으로金利引下를할은지금이가장適當하다는說이相當하잇서昨今三土藏相을中心으로日銀側과의會見이頻繁함은무엇을意味하는지或은不遠間其實現을볼것이아닌가하고注目中이라더라

日銀利下無望

◇井內鮮銀理事談

財界動搖以來日本財界는休業銀行의整理도不振하고資金은一流銀行에偏在하야一時預金利下問題가起하얏든바事實二、三流銀行은資金枯渇로一流銀行은遊資處分難에陷하얏다할아니二、三流銀行의未來處인中小商工業者의困難는依然히不變한다遊資가澎湃하야잇는關係上日銀利下說이傳하는事도잇스나利下하야도單只一流銀行을救濟하는結果로되어一般的이아님으로그効果는그다지期待가不能하다利下한다하면九月中이나十月에入하야할것인데아마利下는하지안흘것갓다非常時에預金資出相殺問題는全혀그러한境過를立法者도豫期치안햇슴으로法律上明文이업서目下相殺可能과不可能의二說에分하야잇는바結局은雙方和議에依하야解決할수밧게他方法은업겟다고云謂되더라

變態的金融 三年以來의現象

(大阪電) 變態的金融經濟은昨秋夕節期平穩通過와新資金需要不振으로再次公債社債等의放資에向하기를비롯하야콜翌日物은드되어九厘의成立이實現되엇는데大正十四年五月以來의現象이라고

正租의 生產檢查要望

經費具體案必要

正租의生產檢查는經費의點으로困難하야實施必要는認하면서도今日外지實現되지못하는實情에잇는바此는今日이라도同樣이다經費問題가解決치안는限에實現은到底히困難이니穀物大會가이에慮하야經費捻出의具體案을附하야要望하겟고그럿치안코다만正租의生產檢查를望한다는것은虛事이라고하며正租의生產檢查에는包裝改善이一인先決問題인데此는最近滿洲粟의輸入이增加됨에依하야此後의流用으로되것이라고하며滿洲粟이二百五十萬石輸入되면三百五十萬枚의俵는得함으로一部가他에使用되더라도正租包裝은거의이것으로足하겟다더라

朝鮮內 硝子生產高

京城商議調查=昭和元年中의朝鮮內硝子生產高는日本人七百九十萬二千餘個二十三萬二千餘圓朝鮮人百二十八萬八千餘個二萬六千餘圓計九百十九萬一千餘個二十五萬八千餘圓으로製造戶數는日本人十三戶朝鮮人二戶이다그리고朝鮮內의總需要高百九十萬圓中輸入百六十萬圓(板硝子五十五萬圓)輸入約二萬圓으로朝鮮內品은主로壜瓶(등피)類瓶과如한低廉品에限定되고板硝子는產出치안는다元年中各道別及累年生產高는如左

	千個	千圓
京畿(日本人・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慶北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慶南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全南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平南(日本人・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咸南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大正四年	[illegible]	[illegible]
八年	[illegible]	[illegible]
十年	[illegible]	[illegible]
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十四年	[illegible]	[illegible]
元年	[illegible]	[illegible]

玉島商銀 一週休業發表

(岡山電) 岡山縣淺口郡玉島町玉島商業銀行(資本金拾萬圓全込)은五日부터二週間의休業을發表하얏더라

疑雲中에潛在된 日本米買上實行

◇米穀委員會政府를攻擊

(東京電) 政府의十五年產日本米百萬石買上聲明은價格如何로臨時此를決行하기로되엇는데現在米價狀勢、今後需給關係로보면其實行을躊躇하는感이잇다日本米買上은定期受渡消兵米를市場으로부터吸收하는意味로新米亂低價 阻止의一方策이나十五年產米는이미商人乃至大農의所有에歸하야買上實行은單只此等投機師를益할에不過함으로可及的買上은소리뿐이오此를適當히新米低價調節買上에轉嫁할意思인듯하나그러나民政黨에서는府縣選擧開際에臨하야米價暴落을材料로政府攻擊의「프로파간다」를全國에配布할計劃이잇다는情報가잇슴으로其事件前에買上實行을하라고與黨側에서바라고잇는데民政黨行動阻止의意味로買上實行을한다하더래도

米價는아즉大災期를脫하기까지는政府의調節豫定價格外지는下落치안코또假使下落하야買上을한다더래도此는몰이어野黨側에政府米價對策攻擊의材料를與한다하야日本米買上聲明은全혀僭害에잡거잇는故로米穀委員會도農林省의曖昧한態度를排斥하야實行을迫究하는中이라더라

金制答申案으로 各銀協議會開

六日午後二時부터總督府에서京城組合銀行에諮問한新銀行法에關한調查는委員의손에依하야大槪完了하얏는데右新銀行法에關係한金融制度改善問題에對하야아즉決定을못한事項(各銀行處地가다르기떼문에)에關하야一二一般銀行과協議할必要가잇슴으로今六日銀行集會所에서午餐會後各銀行協議會를開하고協議하얏는데協議結果에依하야는今週中에總會를開催하고答申案의決定을하리라더라

產業資金 利率決定

(東京電) 梶原勸業銀總裁는五日午前十一時大藏省의松本銀行局長을訪問하고今回預金部로부터融通하기로된產業資金五千萬圓의利率에對하야協議하얏는바該利率은預金部로는五分으로勸銀을通하야貸付하기로되엇는바勸銀으로의貸付利率은五分五厘오또興銀을通하야貸付할것은六分으로모다決定하얏더라

秋繭共販極難

製絲協會共同保管?

秋繭共同販賣는各道當局과製絲協會關係者와의間에서各各製產에協定中이든바兩者의主張이不合하야共販不能인道가잇서全朝鮮에서三千石乃至五千石은處分難이잇게되어各道로부터總督府에善後處置를申請하얏슴으로總督府와製絲協會와直接協議中이다目下로는이繭은協會로서引受하야某時機外지保管한後適當한機會를보아處分할外에업는것갓다資金은協會員의連帶로借入하기로內議中인데今年春繭부터朝鮮內產繭은製絲協會에三井을加하야此에特賣하게되엇슴으로秋繭協會側에서引受치안흐면아니될立場임으로그만交涉이圓滿히되지안흔것이잇다官廳側은此로製絲協會가橫暴이라고하나協會側은此를當然한道理에서나온것이오官廳側의無理解이라고互相非難中이라더라

三井은 秋繭引受拒絕

別項과如히秋繭共販引受에對하야製絲協會는五日來協議中인바朝鮮內製絲事業은一手에引受할三井은秋繭引受에는參加치안키로決定하얏다製絲家가秋繭을넘우實業하야秋繭을실혀하는것또實際에日本販賣가困難한오로다시成立되지안흔것이三井脫退의原因이더라

新銀行 今月末實現?

(東京電) 休銀整理의新銀行設立은着着進行되는바十五近江兩行은아즉整理方針이決定되지안키떼문에此를除하고京濱間六行을中心으로하야資本金一千萬圓으로設立하기로決定하고는今月末에는實現할模樣이라더라

粟輸入量과 米와의差額

滿洲粟輸入數量은昨年十一月부터本年八月末外지總量은鐵道에依한것三十四萬一千九百十噸으로此에船便에依한것二萬二千四百九十八噸을加하야三十六萬四千四百八十噸二百五十五萬五千五百八十石인데前年에比하야八萬二千噸五十七石二千石의增加인바米一石粟一石의平均價格의差를十六圓으로보아本年粟移入에依하야約四千萬圓의節約을한것이더라

東京、大阪兩取引 增資說擡頭

(東京電) 東株理事者는其關係者가豫定한倍額增資任意擔保成案과東京大阪兩取引所合併一億 千萬圓의增資案等은其可能性이거의업기떼문에此에귀도기우리지안엇스나最近關係者의要望에市場救濟로무슨確乎한增資理由를發見한다면此에同意하라는貌樣이라더라

朝鮮產蝦 日本販路擴張

改良할諸點

朝鮮物產協會調查大阪의櫻蝦一個年集散高는靜岡產七萬貫(三分一은着色)朝鮮產二萬貫(大半着色)으로本年은特히鮮產品의移入이增加하야 靜岡產이 脅威되는바朝鮮產品으로서着色의것의原料로서靜岡에移出되는것이多量이다所出地는鎭南浦、仁川龍岩浦인데朝鮮產品은靜岡產에比하야(一)撰別不完全으로品質不統一(二)染料의撰擇不充分과技術未熟、乾燥不充分(三)現物과見本의相違(四)荷造의不完全等으로매우劣等이라더라

紅蔘拂下價格 今月三日協定

專賣局의紅蔘拂下는昨春三井物產과의사히에每三萬五千斤式六個年의契約이成立되어拂下價格은一年마다每年七月에協定하기로되엇든바今年은中國의非常關稅가九月一日부터實施되게되기때문에右價格協定이延期되엇스나最近公使館의抗議에依하야非常關稅撤廢로되엇슴으로지난三日專賣局과三井物產과의사히에本年度紅蔘拂下價格協定이되엇스나右價格은大體前年度와同額이라더라

仁川在米減少

仁川穀物協會調查에依한本月三日現在仁川市內五銀行穀物在庫數는前週에比하면合格品은九、九六五叺의減少로無檢查品은加減이無한데在庫品을細別하면左記와如하더라

▲玄米四斗入 四九、六七〇叺五斗入九五八叺▲白米四斗入一〇二叺▲正租叺入四、三〇〇叺俵入四、八七八俵▲大豆四斗入一、一三二叺▲小豆四斗入四〇〇叺▲小麥四斗入二、〇七三叺▲粉米四斗入六八二俵▲粟七斗入三五〇俵▲外國米七斗入一四、一〇三俵(擬)一、一五八俵(仁川)

期米

仁川期米 六日

	再昨後止	今後止	比較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場瓦落

昨後場阪地三十一圓八十一錢止와共히二十五圓四十錢에寄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三十一圓八十一錢인昨止同樣임을振하고 **二十五圓四十四錢** 인亦昨止同樣으로寄함後二節阪地八十五錢報와相俟하야五十一錢外지小戾하엿다가結局阪地六十錢의最低로止한當場은약十八錢에軟弱히場을止하나高低의差는三十三丁이며阪仁의鞘는六百四十二丁이더라

俄然恢復되는 秋天의低氣壓

昨後場阪地의一圓八九十錢을爲持하엿슴은關西地方의大雨를懸念함인듯하다그러나秋天의低氣壓은오래持續하지안코俄然恢復하는것으로豫側할수잇다此際에第一危險視하는것은颱風이나그러나아즉何等의警報가無함으로足히安心할수잇스며雨天에도念慮는업지아니하나小雨는繼續하지안코一時的大雨나或은小雨에止한다하면何等의災害가無할으로또한그다지憂慮할것이업다고某軟派는主唱한다果然大阪灣에잇는七百四十九粍의低氣壓과東海南部에잇는七五〇粍의低氣壓이東北으로移動하는中임으로今後如何히轉變될지兩方共히注目中이나秋雨性이多한此時期임으로降雨한다할지라도米作上被害되기外지에는至치아니하리라고云云

◇天氣槪況=低氣壓은大阪灣에七四耗를示하는것과東海南部에七五耗의것이잇서共히東北東으로移動中이며高氣壓은依然南洋方面에七五七耗의것이잇다天候는山東과北中國은大槪良好晴이나日本地方은大槪不良인關西方面은各地共히數十粍의雨量을見하엿다

◇天氣豫想=北中國의高氣壓은南東方으로移動하야朝鮮天候는大槪良好하리라고

◇天氣預報=晴一時曇

因의買는 群山筋의注文?

當地因筋의買物는表現上七八千石의相當한石數를聚합으로此에對하야一般은何筋의買物인지疑問視하는바이다同筋을本營으로한京城淺野筋은旣히中限의大買物을擁抱하엿슴으로先限을買占할理가萬無하다고도하고或說은隱然中에서中限을賣退하는一方으로先限을買進한다하나그러나某確實側의說에依하면淺野筋은昆價를待하야買埋하려하는計劃임으로決코買扭하지아니한다하며現下買玉은群山某有力筋이該地延取의低落을防止하기爲하야當市場에外지賤繩을延長하야因를中心으로하야賣占한이라고한다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小落

	當限	中限	先限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各限後合 前場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賣方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合計	一四五〇〇石	七〇〇〇石

大阪期米

前場	寄	當	中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寄	當	中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氣配 三十一圓二十四

各地期米

	前場	後場
東京	[illegible]	[illegible]
兵庫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桑名	[illegible]	[illegible]

仁川正米時勢

玄米三等	二八、三〇〇
同 四等	二七、八〇〇
無檢查米	二六、八〇〇
等補白米	三一、八〇〇
在來正租	八六匯
改良正租	八六匯

株式

京取市場 六日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寄	大引	後寄	大引
京取	―	[illegible]	―	[illegible]
鐘新	―	[illegible]	―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場極閑

京取 一〇高 大新 二〇低

鐘新 保價 東新 八〇低

人氣漸漸閑散 諸株依然不振

今朝前場은아조疲弊한狀態로東新은百三十七圓丁寄後六圓七十錢大引인低落이오大新은七十四圓七十錢寄와六十錢인寄引二本鐘新은百十九圓九十錢大引一本이오久原은五十圓丁인上鞘步一本이오京取亦二十圓九十錢인大引一本뿐이더라

商勢去益閑散

大新에對한人氣는選材出盡으로因한人氣로因하야上伸코저하는氣勢가有하나實情의不伴으로容易히積極的行動으로上伸하기는不可能한態가有하고東新亦百三十圓臺에서四十圓間을一去一來하는中으로結局保로하기때문에商勢는堅保合不動中閑散할따름이오昨今買進하든

新田側은賣拔

하라는行動을取함으로京取는二十圓關門에서低迷不振하나然이나二十圓大關門은容易히割下되지안흘것가든데今後動機가如何할지그것이注目處인데低하는바에依하면

東、阪取引所

의增資說이擡頭하야漸次具體化

配當落諸株

左記諸株는九日後場부터配當落이더라

▲仁取新諸株▲金剛電鐵株▲電氣興業株▲朝鮮郵船株

하라는氣勢이라하나或은此가動機로一相場이來할가하는企待도잇더라

前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鐘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久原 [illegible]

▲東新 [illegible]

後場大爆撥

京取 二〇高 大新 二三〇高

鐘新 九〇高 東新 二一〇高

日銀利下說과 東阪株增資로

今後場은日銀利下在邇說과東京大阪取引所增資說에大阪이暴撥하며當所新田買와小口利喰賣로東新은百三十八圓十錢寄後一躍九圓五十錢外지突高하얏다가八圓八十錢大引이오大新은七十五圓六十錢寄後新田千二百買物과利喰賣로七圓二十錢으로騰하드니六圓八十錢으로波瀾中大引이오鐘新은百二十圓八十錢大引京取二十一圓丁步로十錢大引一本이오이더라

後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鐘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大阪短期株式

株名	前寄	大引	後寄	大引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組代引算定日步

株名	取組	大引	算定	日步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出來高

▲長期合計 ― 累計 ―

▲短期合計 一五一 累計 二八九〇

大阪短期步調

▲前場大新 [illegible]

▲前場鐘新 [illegible]

▲前場久原 [illegible]

▲前場東新 [illegible]

▲後場大新 [illegible]

▲後場鐘新 [illegible]

▲後場久原 [illegible]

▲後場東新 [illegible]

大阪長期株式

株名	前寄	大引	後寄	大引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久原	[illegible]	[illegible]	―	―
同新	―	―	―	―
郵船	―	―	―	―
同新	―	―	―	―

京城穀類肥料市勢

(滿鮮社調查部調)

精白米	[illegible]
合格玄米三等	[illegible]
四等	[illegible]
遼陽粟	[illegible]
北滿粟	[illegible]
미돈玄米	[illegible]
龍山大豆	[illegible]
鐵原大豆	[illegible]
滿洲綠豆	[illegible]
滿白胡麻	[illegible]
豆粕	[illegible]

◉兒孩를바라는人도 바라지안는人도보오

男女 生殖器 圖解研究

◆◆性交法의研究 避姙의法研究

(錄附)●本書는누구던지알아두지안으면안될男女生殖器의圖解說明

能辯의手淫▼生殖器의諸病 男女姙娠의原因과過注意의害와 不及의注意▼花柳病豫防과療法 明姙의注意 性交의避姙方法의意義 必要한境遇의方法等의說 數項▲避姙의方法 解得키易한▲遲延의方法 金字函入 洋裝新形 ●前金注文送料無料▼代金引換은三十錢增 急送▼此際本書注文者 定價金壹圓

美人裸體寫眞 嫁入草紙 圖解 一冊進呈

東京日本橋 振替東京七四三三番 福幸堂

古本高價買入 京城本町三丁目百番地 金子書店 電話(本)二一二番

書籍高價典當함 京城黃金町四丁目五番地 金子質屋

新學期講義內容

倫理學(杉森孝次郞) 心理學(金子馬治) 哲學講說(桑木嚴翼) 社會學(杉森孝次郞) 文學概論(本間久雄) 現代日本文學評論(宮島新三郞) 現代支那文學評論(青柳篤恒) 國文學史概論(藤村作) 支那文學史(兒島獻吉郞) 國文法(永井一孝) 修辭學講話(五十嵐力) 漢文作法(兒島獻吉郞) 國漢文科教授法(保科孝一) 歐洲文藝思潮大觀(本間久雄) 英米文學概論(橫山有策) 佛蘭西文學概論(吉江喬松)

獨逸文學概論(山岸光宣) 露西亞文學概論(片上伸) 國文 徒然草(山口剛) 古事記(西村眞次) 萬葉集(窪田通治) 大鏡(松井簡治) 增鏡(松井簡治) 評釋 軍記物語(五十嵐力) 枕草子(五十嵐力) 源氏物語(永井一孝) 文藝 短歌の鑑賞(尾上八郞) 俳句の鑑賞と作法(佐藤春夫) 短歌の鑑賞と作法(若山牧水) 大學(荻原井泉水) 中庸(兒島獻吉郞)

漢文 評釋 論語(宇野哲人) 孟子(牧野謙次郞) 韓非子(山口剛) 左傳(山口剛) 十八史略(桂五十郞) 唐宋八大家文(松平康國) 史記(宮地新三郞) 唐詩選(桂五十郞) 改造期の文藝思潮(窪田通治) 紀貫之の歌論(本間久雄) 婦人問題講話(金子馬治) 現代哲學の主要傾向(宮島新三郞) 最近英文學の傾向(西村眞次) 古代日本人の精神生活

この外、中等教員檢定試驗問題撥答、文學研究法、文學辭解、口繪、卷頭評論、讀者文藝、雜錄等を掲載す。

政治經濟講義・法律講義・中學講義・商業講義・女學講義 各講義新學期開始

◇修業年限一ヶ年半(每月一回發行)◇

◇學費一ヶ月一圓卅錢(各冊菊版四百頁以上)◇

早稻田大學 文學講義

本大學創立四十五周年記念の爲め新入校外生全部に記念品を贈呈す

內容見本 申込次第進呈

東京市外戶塚 早稻田大學出版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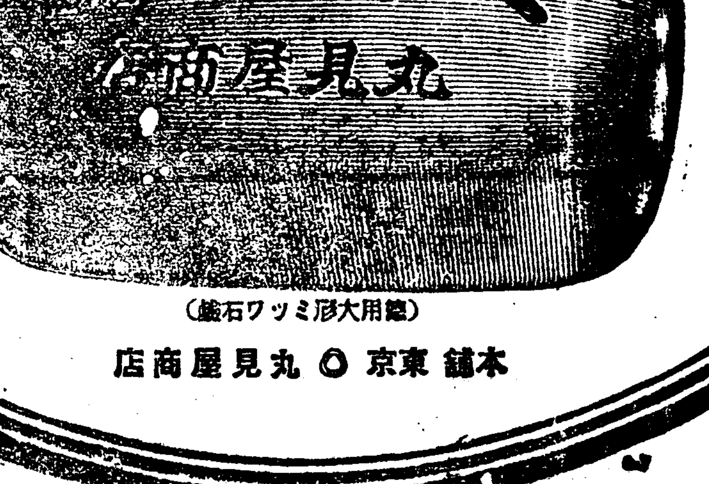
ミツワ石鹸 (미쓰와비누)

◇效果 益々優秀의譽

科學의進步에伴하는不斷의研究는、益益其品質이向上되여、生產品에나타내엿슴니다、即其溶解에미끄러우며그래도決코必要以上은溶解치안슴니다。

芳香은益益溫雅하며。거품은頗히가늘어서、作用이特히緩和하며、어대써지던지가는調子로써저서、대개普通의煉石鹸의三倍以上을長保할수잇슴니다。

◇經濟 三倍以上을保有



(德用大形ミツワ石鹸)

本舖 東京 ○ 丸見屋商店